

미디어한국

MEDIA HANKOOK



Hotel · Gas · Business
Commercial Properties



이상규 부동산의
좋은이웃
Sang K. Yi Broker
206.612.8962 / Real4949@gmail.com



JP INSURANCE 박정연보험

자동차, 사업체 보험, 메디케어



Tacoma 253-228-5295
Federal Way 253-335-3895



주 패밀리 클리닉

· 소아진료 · 부인진료 · 보톡스·필러
· 성인진료 · 노인진료

Open Hours
Mon: 9am-6pm
Tue-Fri: 8am-6pm
Sat: 8am-1pm

425.409.9247 kk@joofamilyclinic.com
www.joofamilyclinic.com

22618 Hwy 99, #106 Edmonds, WA 98026 (부한플라자)

세상의 모든 소식 Haninsosik.com



"8만 달러 모았다"

타코마 한인회, 지난달 30일 회관 보수 기금 마련 갈라 나이트 개최
이상규 전 회장 · 이회백 · 이정자 부부 등 1만 달러 고액 기부 잇따라

워싱턴-타코마 한인회(회장 임경, 이사장 종 데므런)가 지난 5월 30일 타코마 한인회관에서 개최한 '회관 보수 기금 마련 갈라 나이트'를 통해 총 8만여 달러의 기금을 모금했다. 이로써 워싱턴-타코마 한인회는 '회관 재건 및 보수공사' 명목으로 받게 될 한국 정부 지원금 7만 5천 달러를 합해 총 15만여 달러의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 참석자들이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S-WA 강병덕 기자> <관련기사 Page-17>

THE ONE LOGIS, theonelogisllc.com

하나 통운

후회없는 선택, 꼭 비교해 보세요!

워싱턴주 최대 한인운송업체 / 한인이사인력 운영

· 택배 · 이사 · 수, 출입운송 · 창고보관 · 자체 통관사 운영

253-872-8181

굿닥터 카이로프랙틱 GOOD DR. CHIROPRACTIC

교통사고 · 디스크 · 만성요통 · 스포츠 상해 · 축만증

두통 · 척추관절 교정 및 전신 통증 치료전문

예약 전화: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Lynnwood, WA 98036

2027년 서북미 통합업소록과 함께하세요! 통합한인업소록 리스팅 · 광고접수 광고문의 206.779.5382

KOREA ONDemand TV Box

우리클리 Kooli

ODK BOX

FREE

최대 합법 IPTV 한국 방송
지금 1년 서비스 구매하시면

\$100 Smart TV BOX 무료!
온디맨드 프리미엄 멤버십 무료!

\$19⁹⁹/월

KBS	MBC
EBS	tvN
SBS	MBN
JTBC	JTBC GOLF
CHANNEL A	TV CHOSUN
CBS	comedy TV
OCN	Mnet
Billiards TV	+ 10 More

ODK BOX 단말기 증정 이벤트는 무엇인가요?
ODK BOX 서비스를 통해 한국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선 전용 단말기가 필요한데, 단말기는 \$100에 구매하거나, \$50 보증금을 맡기고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에는 1년 구독하시는 분에 한해 \$100 상당 전용 단말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년 서비스 사용료 또한 240불에서 180불로 할인해드립니다.

ODK BOX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ODK BOX는 셋톱 박스로, 아무런 종류의 TV에 기기만 연결하면, 모든 ODK 콘텐츠를 큰화면에서 리모콘으로 더욱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ODK BOX만의 특별한 혜택
최신/구작 다시보기 + 실시간 + 100개 채널제공
무약정 / 단말기 무료렌탈
All in One(티비, 핸드폰, 태블릿 컴퓨터에서 시청 가능)
온디맨드코리아 PREMIUM 멤버십 제공(동시 시청 최대 5명)

ODK BOX CARE +
친절한 한국어 기술지원, 설치 안내 및 상담, 단말기 무상교체, 안심케어

린우드 : 253-230-7928 (정관장 린우드) / 에드몬즈 : 425-773-3525 (Ace Life USA)
페더럴웨이 : 253-232-9277 (K-Beauty)

Best Choice REALTY

■ 주택

■ 비즈니스

■ 커머셜

■ 상담환영



살때도, 팔때도!



권미경 부동산

253.335.5301

Managing Broker MiMi Kwon

E: mimibestchoice@gmail.com

www.homesnap.com/Mikyoung-Kwon

YouTube 권미경부동산

Facebook: Mimi Kwon
Instagram: Mimikwon

NEW **Bellevue** **\$1,099,950**

3 beds / 3 bath
벨뷰 인기 커뮤니티의 첫 매물로 나온 프리미엄 코너 유닛 모델하우스이며, 고급 마감, 2차 차고와 우수 학군까지 갖춘 희소성 높은 럭셔리 타운홈.

NEW **Puyallup** **\$559,500**

4 beds / 3 bath · 2,297 sqft
실거주와 투자에 모두 적합한 2,297sf 단독주택. 대용 차고, 프라이빗 백야드까지 갖춘 매물. 현재 월 \$2,800 렌트 수입, 2027년 1월 말까지 리스 유지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가능.

Spanaway **\$559,000**

NEW

4 beds / 3 bath · 2,473 sqft
2006년식 / 보너스룸 게이트커뮤니티 / 2026년쿼츠카운터탑 / 가전교체 최근내외관폴 리모델링 / 가전일체포함 / 조용한주택가 / 공원산책로인접 / 미군기지JBLM수분거리요충지

Auburn **\$1,100,000**

NEW

5 beds / 3 bath · 3,365 sqft
스타레이크에스테이트 / NorrisHomes리셀 / 막다른골목 / 0.5에이커대지 / 마운트레이니어 오픈컨셉주방 / 야외파티오 / 테라스안방 / 제트욕조 / 신축지붕 / 잔디교체(2026년) 온수기교체(2025년) / 비상발전기 / 3차고 / I-5·Hwy167인접 / 라이트레일역세권

Edmonds **\$1,049,950**

NEW

5 beds / 3 bath · 2,117 sqft
에드먼츠턴키매물 / 2026년4월을수리 / 전면신축 / 임대수익최적화 신축지붕·데크 / 내외벽도색 / 바이날바닥재 / 2차고·카포트 / 신축벽난로 가전일체포함 / 안방세탁기후입 / 명문학군 / 편리한교통·편의시설접근성

Tacoma **\$545,000**

New Price

3 beds / 2 bath · 1,582 sqft
잘 관리된 3베드·2베스 램블러, 최신 지붕·주요 업그레이드 완료. 넓은 보너스룸, 큰 마당까지 갖춘 조용한 동네의 즉시 입주 가능

Lakewood **\$600,000**

NEW

레이크우드중심지 / 단독식당건물 / 18년성공정착 / 유동인구풍부 / 우수한가시성 주방·홀셀비원비 / 워크인클러 / 요리장비·조리대·냉장고포함 / 테이블·의자원비 대형후드 / 한식·비비큐·카페·프랜차이즈적합 / 현상태그대로인수(가전·집기포함)

Auburn **\$599,950**

NEW

3 beds / 3 bath
오번모델하우스매물 / 최초분양1인소유 / 게이트커뮤니티 / 방3 욕실2.5 2차고 오픈컨셉구조 / 그라니트카운터탑 / 아일랜드주방 / 스테인리스가전 / 단지내수영장 다용도로프트 / 대형세탁실 / 토마스제퍼슨고도보권 / I-5·Hwy167·라이트레일인접



박 · 쉬나 합동법률사무소

PARK CHENAUR AND ASSOCIATES
ATTORNEYS AT LAW

지금 전화하세요

대표전화

253-839-9440

www.parkchenaur.com



김벌리 윤

사무장

24년 이상 경력

253.344.7488



지나 김

사무장

16년 이상 경력

206.498.6040

오피스 시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사무장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 개인상해

Car Accidents

Personal Injury

법정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능숙한 변호사들!

고객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켜드립니다.

페더럴웨이 오피스:

2505 S 320th St. #100 Federal Way WA 98003
(320가 1-5 옆 검은색 유리빌딩 1층)


타코마 오피스:

3517 6th Ave. Tacoma, WA 98406

ICE 이민단속국 단속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 ✓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기본 권리가 있습니다.
- ✓ 영장 없이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문을 열지 말고, 문 틈으로 레드카드를 보여주세요.
- ✓ 영장이 있어도 귀하의 이름과 주소, 판사 서명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 큰 소리로 또렷하게 말하세요. 침착하게 행동하세요.

 귀하에게는 헌법이 부여한 권리가 있습니다.

- 이민국 요원이 문을 두드릴 경우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 이민국 요원이 검문을 할 때 어떤 질문에든 대답하지 마십시오. 귀하에게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변호사와 만나기 전에는 어떠한 서명도 하지 마십시오. 귀하에게는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가 있습니다.
- 집 밖에 있을 경우, 이민국 요원에게 귀하가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고 이민국 요원이 '예' 라고 답변을 한다면 침착하게 자리를 떠나십시오.
- 이 카드를 이민국 요원에게 주십시오. 만약 귀하가 집안에 머물고 있다면, 이 카드를 창문이나 문 아래로 밀어 넣어 전달하십시오.

I do not wish to speak with you, answer your questions, or sign or hand you any documents based on my 5th Amendment rights under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I do not give you permission to enter my home based on my 4th Amendment rights under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unless you have a warrant to enter, signed by a judge or magistrate with my name on it that you slide under the door.

I do not give you permission to search any of my belongings based on my 4th Amendment rights.

I choose to exercise my constitutional rights.

These cards are available to citizens and noncitizens alike.

기억하세요! 4가지 권리 선언



침묵할 권리

"I wish to remain silent."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 권리

"I want to speak to a lawyer."

(“변호사와 상의하고 싶습니다”)



영사 접견 권리

"I wish to contact Korean Consulate."

구금 시 대한민국총영사관에 연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동의 자유 행사

"Am I free to go?"

공공장소 단속 시 가도 되는지 묻은 후 침착하게 이동하세요.

이렇게 대처하세요!



거짓말 하거나 도망가지 마세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레드카드를 건네세요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마세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세요

변호사와 상의하기 전에는 임의로 서명하면 안됩니다.



기록하고 증거를 남기세요

집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촬영하고, 시간 장소 상황을 기록

반드시 외워 들 정보

- 변호사와 가족들의 전화번호
 - 시애틀총영사관 전화번호
- 206-441-1011~4**

레드카드 무료 다운로드

한인생활상담소 웹사이트
seattlekcsc.org/know-your-rights



한국어 상담 전화 HOTLINE

425-449-0295
www.ice1004.org

KOREAN AMERICAN IMMIGRATION TASK FORCE



- Korean American Immigration Task Force에서는 이민 단속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수시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나 공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꼭 참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ICE 활동을 목격하시는 경우, 한인 이민정보팀에 연락하시고 지역 커뮤니티 미디어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용 보험 에서 알려드립니다.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건강 보험 프로그램입니다

파트 A: 병원 / 입원 보장, **파트 B:** 의료 보장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벤처지 플랜이라고도 하며 파트 A와 B를 대신 관리합니다.
다른 혜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트 D: 처방약 보장

메디케어 어드벤처지 처방약 플랜 - 파트 C 및 D

메디케어 어드벤처지 처방약 (MAPD) 플랜은 메디케어와 계약을 맺은 민영 회사에서 메디케어 A,B 관리를 대행 합니다. 월보험료는 \$0 이거나 그 이상 일 수 있습니다. 최대 본인 부담금 이후에는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는 합당한 의료비라면 100% 커버 됩니다. 다양한 수준의 보장을 포함한 플랜을 제공 할수 있습니다. 해당 플랜의 의료보장, 의약품 코페이가 다를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A, B 를 1차보험으로 사용 할때보다 의사네트워크가 적을수 있습니다.

*어드벤처지 플랜 등록 대신에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플랜을 2차보험으로 선택 하실수도 있습니다.

보험등록 기간

초기 가입기간(65세 생일이 속한 3개월 전, 후)	Medicare 에 처음 가입하는경우 65세를기준으로 3개월 전, 후 7개월 동안 가입, 약보험 가입이 늦어지면 매월 평균 보험료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연중 가입기간(10/15-12/7)	새로운 약보험,또는 메디케어 어드벤처지 플랜에 가입 가능하며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작 됩니다
오픈 가입 기간(1/1-3/31)	이미 메디케어 어드벤처지 플랜에 있다면 다른 메디케어어드벤처지 플랜에 가입 또는 오리지날 메디케어로 변경할 수 있고 약보험에 등록 이 가능합니다
특별 등록 기간	적격 생활 변화이후 2개월 동안 다른 플랜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퇴후 직장보험 상실, 이사 등, 현재플랜이 정부CMS 와 계약이 끝난경우

보험 등록시 유의할 점

주치의, 전문의, 병원, 약국에서 모두 계약이 되어 있는지, 현재 복용중인 약을 모두 커버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1년중 총 지불 해야 하는 약 비용에 대하여 비교하셔야 합니다

메디케어 세이빙스프로그램 , 약보험 보조 프로그램 신청

위 혜택을 받으시면 메디케어 비용에 대하여 보조를 받을수 있으며 메디케어 어드벤처지 듀얼 플랜에 등록자격이 되시며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일 경우 수입 기준이 더 높습니다.

조선용 보험 에서서는 메디케어 신청부터
메디케어 비용 보조 프로그램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425-951-9210

(주내과 옆)

4713 168th St SW Ste 103 Lynnwood, WA 98037



한인생활상담소, '아시아인 아메리칸 아트 캠프 2026' 참가자 모집

음악 · 미술 · 연극 · 사진 등 예술 활동 통해 정체성 탐구
6월 29일부터 5일간 진행...오는 6월 12일 신청 접수 마감

한인생활상담소(KCSC·소장 김주미)가 아시아인 아메리칸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자기표현 능력 향상을 위한 '아시아인 아메리칸 아트 캠프 2026(Asian American Art Camp 2026)'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캠프는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5일간 워싱턴주 인디아놀라에 위치한 캠프 인디아놀라(Camp Indianola)에서 개최된다.

한인생활상담소가 마련한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으로, 지역사회 예술가와 리더들이 멘토로 참여해 참가자들의 창의성과 자기표현 능력 개발을 돕게 된다.

올해 캠프는 음악, 시각예술, 사진, 조형예술, 연극 등 다섯 개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참가 학생들은 랩과 노래, 악기 연주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해 회화와 드로잉, 자

연 및 정물 사진 촬영, 접도를 활용한 조형 작품 제작, 스케치 코미디와 연극 공연 등 다양한 창작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예술 교육과 함께 카약, 하이킹, 해변 수영 등 야외 체험 활동도 마련돼 자연 속에서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시간도 갖는다.

캠프는 6월 29일 정오부터 오후 1시 사이 참가자 등록과 입소를 시작으로 7월 3일 오후 3시에 마무리된다. 캠프 기간 동안 모든 참가자에게 식사가 제공된다. 행사가 열리는 캠프 인디아놀라는 시애틀-베인브리지 아일랜드 페리 이용 시 약 30분, 에드먼즈-킹스턴 페리 이용 시 약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주최 측은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카풀 이용도 권장하고 있다.

참가 대상은 2026년 가을학기 기준 6학년년부터 12학년 진학 예정 학생이며, 참가비는 250달러다. 등록 시 참가비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된 참가비는 환

불되지 않는다.

한인생활상담소는 킹카운티의 '베스트 스타츠 포 키즈(Best Starts for Kids)' 지원을 받아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저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가비 부담이 있는 가정은 장학금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다.

김주미 소장은 "이번 캠프가 청소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예술로 표현하고 또래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아시아인 아메리칸으로서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가 신청 마감일은 6월 12일이며, 자세한 내용은 YouthKAN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문의는 YouthKAN 등록 페이지(<https://www.youthkan.net/si26>)를 이용하거나, 그레이스 고(Grace Go·206-518-3049, kcscyouthprograms@gmail.com)에게 연락하면 된다.

2026 KCSC SUMMER INSTITUTE
아시아인 아메리칸 아트 캠프

6/29(월) ~ 7/3(금)
Camp Indianola
10635 NE Shore Dr
Indianola, WA 98342
식사 제공!

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5일간의 특별한 여름 캠프!
아시아인 아메리칸 청소년들이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정체성을 탐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의 열정적인 예술가와 리더들이 함께 참여해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자기표현 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 랩, 노래, 악기 연주 등 음악 활동
- 회화, 드로잉
- 자연 및 정물 사진 촬영
- 정물 조형물 제작
- 스케치 코미디, 연극 공연
- 카약, 하이킹, 해변 수영 등 야외활동

대상: 6-12학년 진학 예정자
선착순 모집, 저금 신청하세요! (6/12 신청 마감)
www.youthkan.net/si26

한인생활상담소
Korean Community Service Center

홍보 포스터.

사고로 부상을 입으셨나요? 저희는 최대한의 보상을 위해 끝까지 싸웁니다.



📌 Auto Accident Personal Injury (교통사고/개인 상해)

📌 Immigration Law (이민법)

📌 Speeding/DUI (속도위반/음주운전)



**경력 많은 전문 변호사 2인이
교통사고·이민법을 집중 대응합니다.**

- 사고 피해, 억울하게 당하지 마세요
- ▶ 최대 보상, 끝까지 책임집니다
 - ▶ 무료 상담 | 성공보수제
 - ▶ 승소 전까지 비용 부담 ZERO

Joseph Sim(Director) : 253-222-8888 after hours WWW.ACCSEATTLE.COM
Main 오피스: 206-414-2750 / 팩스: 888-844-7339 ADLG.FED@GMAIL.COM

시애틀 한국문화센터

— SEATTLE KOREAN CULTURE CENTER —

배우고, 즐기고, 연결되는 공간 ♡



새로운 배움



소중한 만남



즐거운 일상

PROGRAMS



통기타 클래스

기초부터 연주까지, 함께 즐기는 기타 수업



생활영어

일상 회화부터 실용 영어까지



라인댄스 / 줌바댄스

신나는 음악과 함께 건강하게!



컴퓨터 기초

컴퓨터 기본부터 활용까지 쉽게 배워요



재봉 클래스

기초 재봉부터 작품 만들기까지



스패니시 클래스

기초 스페인어 회화

SPECIAL

싱글 모임 ♡

매주 3째주 토요일 5시



📍 **해송식당** 32703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



모집 안내

- ✔ 수강생 모집 중
- ✔ 강사 초빙 (재능 나눔 환영)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함께 성장하고 즐겨요!



문의 및 등록

206-759-0125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와바 코리아 벤더모집

오는 8월 14~16일 시애틀 피어 62 파크서 개최...오는 6월 30일 마감
선착순 아닌 심사제 운영...행사 취지 부합성·차별성 등 종합 검토 예정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KACCWA, 회장 오명규·이사장 은지연)가 오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시애틀 피어 62 파크(Pier 62 Park)에서 '2026 WABA 코리아 엑스포 &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참가 벤더를 모집한다. 신청 마감은 오는 6월 30일이다.

'문화가 비즈니스를 만나는 곳(Where Business Meets Culture)'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행사는 한국 문화 콘텐츠와 비즈니스 기회를 결합한 엑스포형 페스티벌이다.

지역 기업과 한인 비즈니스, 스타트업, 소상공인, 문화 단체들이 소비자와 바이어, 커뮤니티 리더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된다.

◆ 시애틀 워터프런트 명소 피어 62 파크에서 3일간 진행

행사 장소는 시애틀 워터프런트의 대표 명소인 피어 62 파크(1951 Alaskan Wy, Seattle, WA 98101)다. 현지 주민과 관광객 모두 접근하기 쉬운 입지 덕

분에 행사 기간 동안 폭넓은 유동 인구를 기대할 수 있다. 참가 업체들은 제품 및 서비스 홍보, 현장 판매, 고객 반응 확인, 바이어 상담, 잠재 고객 발굴 등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 비즈니스 엑스포·문화 축제·국제 네트워킹 3개 축으로 구성

이번 행사는 크게 비즈니스 엑스포(B2B·B2C), 문화 축제, 국제 교류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모집 분야는 K-푸드, K-뷰티, 패션, 라이프스타일, 문화 콘텐츠, 지역 서비스 등 한국 문화와 연계되거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군을 아우른다. 특히 케이팝, K-푸드 등 방문객 참여도가 높은 문화 프로그램과 비즈니스 전시를 함께 구성해, 단순한 판매 부스를 넘어 브랜드 경험과 시장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명규 KACCWA 회장은 "WABA 코

리아 엑스포 & 페스티벌은 기업과 소비자, 기업과 기업, 그리고 문화와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한인 비즈니스는 물론 소상공인과 스타트업들이 지역 시장에 브랜드를 알리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선착순 아닌 심사제... 업종 균형·차별성 등 종합 검토

벤더 선정은 선착순이 아닌 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사 취지와 부합성, 제품 및 서비스의 차별성, 문화적 다양성 기여도, 업종 구성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 신청 업체가 수용 규모를 초과할 경우 대기 명단으로 전환되며, 결원 발생 시 순차적으로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및 단체는 6월 30일까지 KACCWA 공식 웹사이트(kaccwa.org/waba-expo-festival)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애틀코리아데일리)

홍보 포스터.

'성역도시' 입국심사 축소 검토...시애틀 여행 비상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성역도시(sanctuary city)'에 대한 압박 카드로 국제공항의 입국 심사 축소를 검토하면서 시애틀 지역 관문인 시애틀국제공항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성역도시가 연방 이민법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도시 공항의 국제선 입국 및 세관 서비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 법무부가 공개한 '이민정책 비협조 지역' 목록에는 시애틀도 포함된 것

으로 알려졌다. 실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시애틀국제공항 국제선 이용객들의 입국 절차 지연은 물론, 항공편 운항 차질과 환승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애틀국제공항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유럽 노선을 연결하는 서북미 핵심 허브로, 매일 수만 명이 국제선을 이용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요 항공사 단체들은 백악관에 "공항 세관·입국 심사 축소는 미국 시민과 여행객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특히 환승객 비중이 높은 공항일수록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

다. 시애틀은 특히 2026 북중미 월드컵 개최 도시라는 점에서 우려가 더욱 크다. 시애틀국제공항은 월드컵 기간 해외 방문객들의 주요 관문 역할을 맡게 되는데, 입국 절차 병목이 현실화할 경우 경기 관람객과 관광객 이동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백악관은 아직 최종 방침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실제 시행 여부와 시점은 불투명하다. 업계에서는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거론된 수준일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 시행 시 시애틀 경제와 관광 산업에 적지 않은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이시애틀뉴스)



Courtesy of Port of Seattle

Open 7 days a Week

벨뷰에서 가성비 최고의 정통 Pho

한 장소에서 25년 경력!
베트남 주방장의 정통의 맛!

I LOVE PHO

Vietnamese cuisine & teriyaki

T. 425-401-6400

3900 Factoria Blvd SE, Suite C Bellevue, WA 98006 <벨뷰 남대문 식품 옆>

이영이보험

- ✓ 곧 65세가 되십니까?
- ✓ 직장보험이 종료 되십니까?
- ✓ 타주에서 이사오셨거나 거주지가 바뀌셨습니까?
- ✓ 파트 D(약보험)으로 Extra Help를 받으십니까?
- ✓ Medicare와 Medicaid를 소지 하셨습니까?

* 위에 해당되는 분들은
스페셜 가입기간에
Medicare Advantage(Part C)나
보충 보험을 가입하시거나,
다른 플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욱
친절한 상담과 안내로
다양한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영이 보험이 여러분의
올바른 메디케어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
상담전문**

Licensed Insurance Agent
206.407.8478
206.250.2760
youngyi712@gmail.com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라이선스 보유



페더럴웨이 “건전한 복음 중심 교회” 새소망교회



SUNDAY AM 11시 예배
WORSHIP PM 02시 열린찬양예배

화,수,목, 금요일 오후 7시 찬양과 기도
(예배 전 오후 6시에 저녁식사와 친목)



즐거운 찬양 공간



열린 예배 공간



성도님들 친교

“마음을 채우는 예배”

새소망교회는 1.5세 젊은 목회자가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따뜻한 교회



처음이어도 괜찮고, 다시 와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교회입니다.

청년을 품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젊은 목회자와 함께하는 열린 예배
누구든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청년들이 편하게 모이는 열린 교회”
신앙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을 기다립니다.



Contact Us

✉ lsohn77@yahoo.com

📍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253) 508-8902

www.newhopecommunitycenter.com





청매실



330g

홍쌍리 청매실 농축액
\$149.99

섭취량 및 섭취방법
1일 1회,
1회 3g 정도(차숟갈 하나)
그냥 섭취하거나
음용수에 희석하여
꿀이나 기타 감미료를
혼합한 뒤 섭취

홍쌍리 청매실 농축액은 정성스럽게 재배한 매실을 씨앗 분리기에서 씨를 분리시키고 100% 매실즙만으로 가용성 고형분을 75% 이상으로 고농축 시킨 후 전동용기에서 숙성시킨 제품입니다.

홍쌍리 청매실원은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매실을 올리고당과 7:3 비율로 배합하여 50년 이상된 전통 향아리에 넣어 발효 숙성시켜 만든 매실 원액으로서 몸에 이로운 구연산 등 각종 유기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가족 누구나 쉽게 마실 수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420ml x 2병

홍쌍리
청매실원 선물세트 2호
\$33.95



1.5Lt

홍쌍리
청매실원
\$54.95



420ml

홍쌍리
청매실원
\$19.95



홍쌍리 청매실



300g

젤리골드
\$5.99



300g

캔디골드
\$5.99

매실의 효능

- 피로회복
- 체질 개선
- 간장보호 및 간기능 향상
- 해독작용
- 소화불량, 위장장애 해소
- 칼슘 흡수율 증가
- 살균, 살충작용
- 만성 변비
- 피부 미용
- 염증 제거



타코마 신신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실 세일즈를 구합니다. Email : twin0418@aol.com

또는 이력서를 가지고 내사바람

안깎아도 싸게 파는
신신백화점 8726 South Tacoma Way
Lakewood WA 98499

구입의
문의를

월-토: 10AM-7PM / 일: CLOSED

253-582-2975

광역시에틀한인회-에드먼즈 칼리지, 교육·문화 교류 확대 맞손

김원준 회장 등 임원들, 에드먼즈 칼리지를 방문해 전략적 협력 방안 논의 학생 교환·캠프 등 통해 다문화 사회 연결하는 국제교류 플랫폼 구축 기대

광역시에틀한인회(회장 김원준)가 최근 린우드에 위치한 에드먼즈 칼리지(Edmonds College)를 방문해 교육·문화 교류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원준 광역시에틀한인회 회장을 비롯해 샘 심 이사장, 데이빗 한 수석부이사장이 참석했으며, 에드먼즈 칼리지 측에서는 Amit Singh 총장과 대학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양 기관은 이날 국제 교육 교류와 다문화 협력 증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뜻을 모으고 다양한 공동 사업 추진 방안을 협의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한국과의 학생 교환 프로그램 추진, 청소년 및 대학생 대상 썸머캠프 운영, 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 확대, 문화·예술 및 지역사회 행사 교류, 캠퍼스 시설 활용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양측은 한국 유학생과 국제학생들을 위한 세미나와 학술대회, 리더십 프로그램,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공

동으로 추진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에드먼즈 칼리지는 캠퍼스 내 교육 및 문화시설 활용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한인사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양 기관은 특히 캠퍼스 내 블랙박스 시어터(Black Box Theater)를 활용한 문화예술 프로젝트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민족과 국가 출신 학생들이 참여하며, 각 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조명하는 독립영화,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상영회와 필름 페스티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서로의 문화적 배경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상호 존중과 화합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원준 회장은 "에드먼즈 칼리지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물론 세계 각

국의 학생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인사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mit Singh 총장은 "에드먼즈 칼리지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기관"이라며 "광역시에틀한인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욱 폭넓은 국제적 경험과 문화 교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만남은 한인사회와 지역 고등교육기관 간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교육, 문화, 봉사, 국제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파트너십은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와 민족 공동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다문화 사회의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시에틀한인회(회장 김원준)와 샘 심 이사장, 데이빗 한 수석부이사장이 에드먼즈 칼리지 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2026 월드컵 우승은 스페인", 확률 26% 최고

- ▶ 에로 평점·득점력·상승세 세 박자 갖춘 스페인, 우승 확률 26%로 선두
- ▶ 아르헨티나는 디펜딩 챔피언 징크스, 잉글랜드는 고지대 악재로 하향
- ▶ 32강 미국 대 이란, 8강 메시 대 호날두 성사 가능성도 주목

골드만삭스가 스페인을 2026 북중미 월드컵의 최유력 우승 후보로 지목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29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피파 랭킹 2위인 스페인의 월드컵 우승 확률을 26%로 전망했다. 이는 피파 랭킹 1위 프랑스(19%)를 비롯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잉글랜드 등 모든 우승 후보를 앞서는 수치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이 이 내용을 전했다. ◆ 에로 평점이 말하는 스페인의 강점 골드만삭스는 이번 예측이 주로 에로(Elo) 평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로 평점은 원래 체스를 위해 고안된 성적 순위 시스템으로, 축구에 맞게 조정돼 뛰어난 재능, 최근의 상승세, 정신력, 지리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골드만삭스는 "스페인의 우승이 예측되는 이유는 에로 순위가 가

장 높고, 득점 능력과 대회에 임하는 좋은 상승세가 뒷받침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스페인이 결국 7월 19일 뉴욕에서 열리는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를 꺾고 우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 징크스가 발목을 잡는다 우승 후보 2위는 프랑스(19%), 3위는 아르헨티나(14%), 4위는 브라질(8%), 5위는 잉글랜드(5%) 순이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우승국인 아르헨티나의 우승 확률은 직전 우승국인 다음 대회에서 부진하는 경향인 이른바 '슬럼프 효과'로 인해 감소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우승국 프랑스의 확률은 준결승에서 스페인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피파 랭킹 4위 잉글랜드는 에로 평점 자체는 높았지만, 역대 월드컵에서의 부진한 성적과 고지

대인 멕시코시티에서 멕시코와 경기를 치를 가능성 등이 반영되면서 우승 확률이 하향 조정됐다. ◆ 32강 미국 대 이란, 8강 메시 대 호날두 성사 가능성 골드만삭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개별 경기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월드컵 32강전에서 미국 대 이란 경기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두 나라는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에서도 맞붙어 미국이 탈락하는 아픔을 겪은 바 있어, 성사될 경우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8강전에서는 아르헨티나와 포르투갈의 맞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경기는 세계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월드컵 무대에서 치르는 마지막 맞대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사진=시생성이미지] 2026 북중미 월드컵

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 골드만삭스의 과거 월드컵 예측 적중률은 골드만삭스는 2014 브라질 월드컵부터 매 대회마다 우승 확률 시뮬레이션을 발표해 왔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당시 우승국 프랑스를 유력 후보로 지목해 적중시킨 바 있으나,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브라질을 1순위로 꼽았다가 빗나가기도

했다. 이번 예측이 실제 대회 결과와 얼마나 일치할지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에서 공동 개최되며, 결승전은 7월 19일 뉴욕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사상 처음으로 본선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된 대회이기도 하다. <시애틀코리아데일리>

미디어한국
MEDIA HANKOOK

스포츠서울USA
Sports Seoul SEATTLE

WOMAN'S

MEDIA GROUP CORP.

세상을 바꾸는 작은 힘
haninsosik.com



드림투어
Cruise & Travel
꿈같은 여행을 드림, 드림투어

31434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
206-200-3113 페더럴웨이 H마트 건너편
(전화/문자 상담 가능)

TALK 카톡으로 빠른 상담하기
실시간상담
드림투어

최저가 항공권 **앗! 항공권이 인터넷보다 싸다!!**
KOREAN AIR DELTA ASIANA AIRLINES

● 크루즈 ● 항공권 ● 투어 ● VIP의전 ● 연수 ● 버스대절

도쿄 신칸센부터 설악산 비경까지!

고국/일본 관광 10박 11일

도쿄 > 하코네(온천) > 오사카/고베 > 교토/나라 > 부산 > 울산/경주 > 안동 > 평창/강릉 > 설악산 > 서울

단, 1회!
10/17 ~10/27

인솔자 동반

- ★ 빠르고 편안한 이동 ★ 일정 후 고국 방문 연장 가능
- ★ 고국의 향수를 채우는 '팔도 미식 & 전국 일주'
- ★ 전 일정 전문 가이드 및 엄선된 4~5성급 호텔
- ★ 일본의 정취를 느끼는 '특급 온천' 숙박
- ★ 도쿄-오사카 구간 '신칸센' 탑승

\$2,999 + 항공

올가을, 가장 아름다운 단풍은 샤를부아에서 만납니다.

캐나다 샤를부아 단풍여행 5일

천섬&오타와 / 생앤캐년&샤를부아 단풍열차 / 올드 퀘벡 관광
몽트랑블랑 최고급 리조트 숙박 / 몽모렌시 폭포&몬트리올

프리미엄
10/14 ~10/18

인솔자 동반

- ★ 몽트랑블랑 최고급 리조트 숙박
- ★ 캐나다 동부 핵심 관광지 완전 포함
- ★ 자연, 도시, 문화가 모두 담긴 프리미엄 일정
- ★ 샤를부아 단풍열차 탑승
- ★ 가장 아름다운 단풍 절정 시즌 진행

\$1,699 + 항공

대만과 일본을 잇는 명품 크루즈

대만/일본 크루즈 8박 9일

타이페이 > 미야코지마 > 나하/오키나와 > 이시가키 > 타이페이

드림 스페셜
11/27 ~12/05

인솔자 동반

- ★ 일정 종료 후 한국에서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다 올 수 있는 일정!
- ★ 크루즈캐빈, 공항트랜스퍼, 기항지투어 포함 노옵션!
- ★ 기항지 투어 전 일정 포함 '노옵션' 프리미엄 여행
- ★ 천연 온천부터 발마사지까지, 완벽한 힐링 코스
- ★ 초대형 럭셔리 선사 'MSC 벨리시마' 탑승
- ★ 크루즈 전후 대만 특급 호텔 숙박

\$2,299 + 항공

스페인 · 프랑스 · 이탈리아 · 몰타 4개국 완벽일주

서지중해 크루즈 9박 10일

바르셀로나 > 마르세유 > 제노바 > 나폴리/폼페이 > 메시나 > 발레타 > 바르셀로나(스페인/프랑스/이탈리아/몰타)

THE BEST
드림 시그처
9/30 ~10/9

인솔자 동반

선착순 디럭스 발코니 ★ 무료 업그레이드 ★

- ★ 정열의 태양과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스페인
- ★ 지중해의 낭만과 남프랑스 특유의 여유로운 감성이 흐르는 남프랑스
- ★ 찬란한 고대 로마의 역사와 르네상스 예술의 정수를 만나는 이탈리아
- ★ 중세 기사단의 성곽과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다가 감싸는 지중해의 보석 몰타
- ★ 최신식 초대형 럭셔리 선사 'MSC 월드 유로파' 탑승
- ★ 선상 위 화려한 쇼와 액티비티 무제한

\$2,799 + 항공료 포함

선사 인증 크루즈 점유율 1위

알래스카 크루즈 크루즈로 만나는 위대한 땅, 알래스카
꿈꾸는대로 펼쳐지는 장엄한 빙하속으로!

전 일정 기항지 투어 특별 할인
8월 1일 / 8월 2일 / 8월 29일

국제 크루즈 연맹 인증 크루즈 전문 여행사 드림투어의 Partner 선사





시애틀코리아데일리



haninsosik.com



2027년 서북미 통합업소록과 함께하세요! 통합한인업소록 리스팅 · 광고접수

업소록 광고를 신청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2 가지 혜택

1 전자신문에 무료 광고 게재

MS Media Group에서 워싱턴주 한인들에게 매주 전달하고 있는 전자신문에 무료로 광고를 게재해 드립니다.

2 웹사이트 광고비 50% 할인 혜택

MS Media Group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온라인신문에 광고하시는 분들께 광고비 5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광고문의 **206.779.5382** / E-mail: mediahankookweekly@gmail.com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



권정종합보험 메디케어



대표 권 정

- 1. 최고의 서비스 Best Service**
한국어 전용 클레임 서비스
- 2. 최저의 보험료 Best Price**
여러 회사와의 비교로 인한 최저 보험료
- 3. 최고의 회사들 Best Companies**
A 급이상 보험회사들로 견적비교



65세 다가오십니까?

귀하에게 적합한 메디케어 플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올해 65세(1961년생)가 되시는 분들
- 직장보험에서 나와 메디케어를 받으시는 분
- 타주에서 이사오신 분 / 거주지가 바뀐 분
-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



SBI SEATTLE BEST INSURANCE INC
시애틀 베스트 종합보험

TACOMA OFFICE

9122 SO TACOMA WAY #108 LAKEWOOD, WA 98499
Fax. 253.473.1214
jeonghee@seattlebesti.com

Tel. 253.472.3977

LYNNWOOD OFFICE

18623 HWY 99 SUITE #240 LYNNWOOD, WA 98037
Fax. 425.741.3300
johnkwon@seattlebesti.com

Tel. 425.741.3600



2026 KO-AM 편성표 6월 08일 - 6월 14일

		월 (6/08)	화 (6/09)	수 (6/10)	목 (6/11)	금 (6/12)	토 (6/13)	일 (6/14)			
5		KTV 뉴스					KTV 뉴스			5	
6		김희중 목사	종교				종교	형제 교회		6	
7		KTV 뉴스					KTV 뉴스			7	
8		KO-AM 뉴스					기본 좋은 날	명성 교회		8	
9	40	명성교회	한사랑교회	형제교회	타코마제일침례 교회	명성교회	나 혼자 산다 (재)	기본 좋은 날 (재)		9	
10	20	첫 번째 남자					라디오 스타 (재)	타코마 침례교회		10	
11		오늘 아침					엄마를 부탁해 (재)	서프라이즈 미스터리 살롱		11	
12		최고의 산			MBC 드라마 (재)	실화탐사대	네티워크 특선	비디오 여행		12	
13		어영차 바다야	결혼 지옥 (재)	소리와 진경 (재)	놀면 뭐하니 (재)	전지적 참견 시점 (재)	네티워크 특선	엄마를 부탁해		13	
14		MBC 뉴스 투데이				KTV 뉴스	구해줘 홈즈	KTV 뉴스		14	
15		KTV 뉴스					MBC 뉴스 투데이	놀면 뭐하니 (재)		15	
16		탐나는 TV	엄마를 부탁해	다큐 프라임	다정다감	네티워크 특선	MBC 드라마	MBC 드라마		16	
17		MBC 뉴스 투데이					MBC 드라마	MBC 드라마		17	
18		MBC 오늘 저녁					놀면 뭐하니	최고의 산		18	
19		첫 번째 남자 (재)					MBC 드라마	소리와 진경		19	
20		KO-AM 뉴스					MBC 뉴스	MBC 드라마		20	
21		결혼 지옥	MBC 드라마 (재)	시골마을 이장우	실화탐사대	MBC 드라마	전지적 참견 시점	MBC 뉴스		21	
22		결혼 지옥	MBC 드라마 (재)	라디오 스타	실화탐사대	MBC 드라마	탐나는 TV			22	
23		KTV 뉴스					기본 좋은 날	PD 수집		23	
24		기본 좋은 날	기분 좋은 날	구해줘 홈즈	나 혼자 산다	기분 좋은 날	오늘 아침			24	
1		오늘 아침									1
2											2
3											3
4											4

* 방송국 사정에 따라 긴급 또는 특별 편성으로 프로그램 편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뉴스, 보도	교양, 다큐	드라마	오락	특집방송	종교
--------	--------	-----	----	------	----



참석자들이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병덕 기자>



1만 달러를 기부한 이상규 전 회장. <김승규 기자>



기부자 이름이 새겨질 도너 월. <김승규 기자>

"8만 달러 모았다"

타코마 한인회, 지난달 30일 회관 보수 기금 마련 갈라 나이트 개최 이상규 전 회장 · 이회백 · 이정자 부부 등 1만 달러 고액 기부 잇따라

5월의 끝자락, 타코마 한인사회가 하나로 뭉쳤다. 지난 5월 30일 오후 4시, 타코마 한인회관에서 워싱턴-타코마 한인회(회장 임경, 이사장 종 데르런) 주최로 '회관 보수 기금 마련 갈라 나이트'가 열렸다. 한인 사회 각계 인사와 동포 100여 명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이날 하룻밤 동안 모인 성금은 총 8만여 달러에 달했다. 당초 목표였던 7만 5천 달러를 단숨에 넘어서는 결과였다.

◆ 재외동포청 매칭 펀드란 무엇인가 이번 모금 행사는 단순한 후원 행사가 아니었다. 한국 재외동포청이 운영하는 매칭 그랜트 지원 사업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사업은 해외 한인 단체가 자체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기금을 모으면, 한국 정부가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타코마 한인회는 '회관 재건립 및 보수공사' 명목으로 이 사업의

승인을 받은 상태였으며, 이번 모금 성공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7만 5천 달러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자체 모금액 8만여 달러에 정부 지원금 7만 5천 달러를 합산하면, 타코마 한인회가 이번에 확보한 보수 재원은 총 15만 달러를 훌쩍 넘는다.

◆ 박미조 부총영사 · 신디 류 의원 등 주요 인사 총출동

행사는 대니 유뱅크오브호프 타코마 지점장과 샌드라 잉글랜드의 더블 MC로 진행됐다. 시애틀 총영사관 박미조 부총영사, 워싱턴주 하원의원 신디 류, 미주한인회 서북미연합회 이수잔 회장, 광역시애틀한인회 김원준 회장, 페더럴웨이 한인회 류성현 회장,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오명규 회장 등 한인 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박미조 부총영사는 축사에서 과거 총영

사와 함께 타코마 한인회관을 방문했을 당시 건물 안이 밖보다 더 추웠다고, 그 경험이 이번 재외동포청 지원을 추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신디 류 의원은 타코마 한인회관이 자신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곳이라고 소개하며, 이곳은 자신에게 미국에서의 고향 같은 장소라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 이상규 전 회장 · 이회백 · 이정자 부부, 각 1만 달러 쾌척

이날 행사의 백미는 잇따른 고액 기부였다. 제32대 타코마 한인회장을 지낸 이상규 전 회장이 1만 달러를 기부하며 기금 모금의 마중물을 부었다. 이회백 · 이정자 부부 역시 1만 달러를 선뜻 내놓으며 큰 힘을 보탤었다. 임경 현 회장과 김창범 제48대 회장은 각각 5천 달러를 쾌척하며 솔선수범했고, 센트럴 워싱턴 대학교 정치학 교수 윤방승 부부는 3천

달러를 전달하며 뜻을 함께했다. 이외에도 수많은 참석자가 금액의 크고 작음을 불문하고 기부에 동참하며 감동의 릴레이를 이어갔다.

◆ 임경 회장 "이민 선배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공간"

임경 회장은 인사말에서 49년 동안 타코마 한인사회를 묵묵히 지켜온 이 회관은 이민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후원자 다음 세대에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려는 마음의 결집이라며, 이 자리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은 한인회관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 자리라고 밝혔다. 현장의 뜨거운 열기와 동포들의 헌신에 감동한 임 회장은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행사 내내 타코마 한인회 임원진은 참석자들을 위해 한식 갈비 바베큐를 비롯한 정갈한 만찬을 직접 준비했다. 임

원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이 더해지면서, 이날 행사는 단순한 모금 행사를 넘어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 완공 후 도너 월 설치, 기부자 이름 영구히 새긴다

타코마 한인회는 이번 모금에 동참한 기부자들의 마음을 영원히 기억하고 후세에 전하기 위해, 새로 건립될 한인회관 내에 '함께 만드는 우리'라는 이름의 도너 월(Donor Wall)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보수공사에 후원한 모든 기부자의 이름이 이 벽에 영구히 새겨질 예정이다.

넓고 허물어져 가던 49년 역사의 타코마 한인회관이 동포들의 따뜻한 손길로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마쳤다. 타코마 한인회는 이번 모금 성공을 발판으로 보수공사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애틀코리아데일리>

BUSINESS FOR SALE BY OWNER

SELLER 와 BUYER의 직거래 광고입니다.

Dry Cleaner	Dry Cleaner	Dry Cleaner	Teriyaki
매매가: \$300,000	매매가: \$400,000	매매가: \$320,000	매매가: \$150,000
연매상: \$400,000	연매상: \$500,000	연매상: \$420,000	월매상: \$35,000
렌트: \$5,260	렌트: \$6,700	렌트: \$4,500	렌트: \$4,250
지역: 페더럴웨이	지역: W. Seattle	지역: 커크랜드	지역: Monroe
문의: 253-334-9042	문의: 206-313-1981	문의: 425-647-9005	문의: 425-273-4357

사업체 매매 무료광고 문의: 206.229.6229 / E-mail: 4989seattle@gmail.com

파킹장

아스팔트, Seal코팅, 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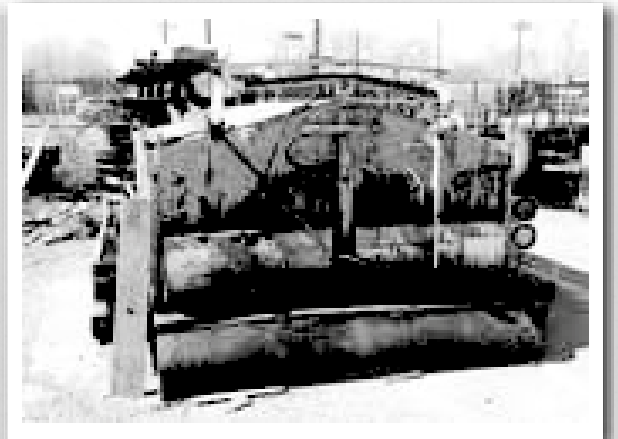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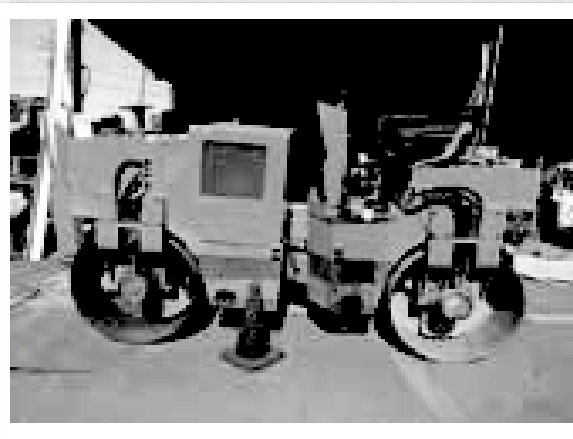


파킹장 문제 해결사!

- 체인 링크 펜스
 - 철제 펜스&게이트 설치 전문
- 최신장비 신속하고 확실한 서비스

보수공사, Line, Sign (핸디캡, 노파킹)

- 병원, 교회, 호텔, 모텔
- 게스 스테이션, 그로서리, 식당
- 쇼핑몰, 아파트, 타운하우스



Bruce & Sons Asphalt
2208 Pacific Hwy E Tacoma WA 98424

이완식

office 253.922.0200

cell 253.334.9654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있다.



한우리 정원 백일장 대상 작품.



졸업식 홍보 포스터.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 개교 첫 졸업식 개최

오는 6월 6일 '2025-26 꿈나래 축제' 겸해...장날 · 학예발표회 · 문화공연 풍성 개교 14주년 맞아 첫 졸업생 배출..."정체성과 뿌리 세우는 소중한 이정표"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이사장 박영민·교장 이재은)가 개교 14주년을 맞아 오는 6월 6일(토) TAF@Saghalie Commons에서 '2025-26 꿈나래 축제(Dream Wings Festival)'와 함께 학교 역사상 첫 공식 졸업식을 개최한다. 2011년 문을 연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는 지난 14년 동안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과 가정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한국어·문화 교육기관으로 성장해 왔다. 올해 행사는 한 학년을 마무리하는 장날 행사와 종강 학예발표회, 그리고 제1회 졸업식이 함께 열려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학생들이 1년 동안 모은 한국 모형돈을 활용해 한국 전통 장터 문화를 체험하는 '장날'로 시작된다. 학생들은 다양한 물품과 먹거리

를 사고팔며 한국의 전통 시장 문화를 직접 경험할 예정이다. 이어 오전 11시 45분부터 진행되는 '꿈나래 축제'에서는 유아·유치부부터 성인부까지 각 학급 학생들이 준비한 노래와 춤, 합창, 전통악기 공연, 제작 영상 상영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NW-NAKS 한국어 말하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아미아 주 그레이 학생과 대상 및 전체 NAKS 대회 동상을 수상한 이지은 학생의 발표가 마련돼 학생들의 뛰어난 한국어 실력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게 된다. 또한 특별 축하 공연으로 '진(JIN) 한국무용단'의 진도복춤과 이소현 K-POP 팀의 공연이 펼쳐져 한국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들의 한국어 표현

력과 창의성을 격려하기 위해 처음 개최된 '한우리 정원 백일장', '사생대회', '그림일기 대회'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지역 공립학교 한국어반 학생들도 초청돼 한국어 글쓰기와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표현했다. 심사에는 서북미문인협회 김미선 회장과 지소영 고문, 워싱턴주 한인미술인협회 에밀리 원 회장과 서희경 작가가 참여했다. 시애틀한국교육원은 부상 지원, 유니뱅크는 행사 지원을 맡아 학생들의 도전을 응원했다. 이번 대회 최고상인 '한우리상'은 그림일기 부문 배지아 학생, 백일장 부문 이예린 학생, 사생대회 부문 박해나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학교 설립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졸업식이다. 올해 첫 졸업생으로는 김시연·박하연·이지은·정나래 학생 등 총 4명이 졸업장을 받는다. 이들은 5년 이상 재학하고 한국어능력 검증시험(TOPIK, NKT) 참여, 미주한인학교 관련 프로그램 이수, 졸업 에세이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 제1회 졸업생 자격을 얻었다. 졸업생들은 이날 졸업 에세이를 발표하며 학교에서의 배움과 성장의 여정을 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할 예정이다. 이재은 교장은 "이번 졸업식은 단순히 학교 과정을 마치는 행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고 한국어와 문화를 통해 정체성을 세워가는 여정의 소중한 이정표"라며 "14년 동안 학교를 사랑하고 함께 세운 선생님들

과 자원봉사자, 운영위원,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첫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해 주시고 앞으로도 학교의 발전과 성장을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이번 행사가 학생들의 성장과 배움의 결실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자리이자, 지난 14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행사는 6월 6일 오전 11시 40분부터 오후 1시 10분까지 진행되며, 장소는 TAF@Saghalie Commons(페더럴웨이)이다. 주최는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가 맡는다.

해외 동포 특별가 성형 패키지

눈 꺼풀 + 눈 밑 처짐.....	360	코대 + 코끝	350
얼굴 처짐(목 처짐 포함).....	700	지방흡입(복부)	500
가슴(보형물에 따라 가격 상이).....	600 ~ 1,000		

* 상담 결과에 따라 수술 방법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휴함을 통한 예약 시 이벤트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휴함에서는 숙박 혜택 및 추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미주워싱턴 본부장

에스더 나

Tel : 206-779-5382

이메일 : skgid7700@gmail.com



+ 페더럴웨이 뉴호프

FEDERAL WAY NEW HOPE | 방과후 학교

방과후학교

숙제 도움 & 성경 공부

HOMEWORK & BIBLE ACADEMY



월요일 - 금요일

Monday - Friday



오후 3:00 - 6:00


3:00 PM - 6:00 PM



초등 · 중학생

Elementary & Middle School

◆ 프로그램 내용 ◆

■  숙제 지도 및 학습 도움
Supervised Homework Assistance

■  성경 공부 & 기도
Bible Study & Prayer

■  간식 제공
Snack Provided Daily

■  미술 & 창작 활동
Arts & Creative Activities

■  음악 & 야외 활동
Music & Outdoor Play

■  안전한 신앙 환경
Safe Faith-Based Environment

📍 오시는 길 / ADDRESS

31411 6th Ave South

Federal Way, WA 98003



수업료: 하루 \$20



206-759-0125

믿음으로 배우고, 사랑으로 자라갑니다!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을 이용해보세요!



만성 질환 수술

더이상 불편함을 참지 마시고 치료 하세요!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사후 관리/ 비용등...
휴람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치질
(1-3일)

자궁
(2-6일)

유방
(2-5일)

척추
(1-5일)

편도선
(1-5일)

담낭용종(담석)
(2-4일)

요실금
(2-4일)

갑상선
(3-4일)

관절(어깨, 무릎, 고관절등)
(3-14일)

암수술
(5-14일)

탈장
(2-3일)

난소
(2-3일)

전립선
(1-14일)

하지정맥류
(1-3일)

※ ()입원기간 표기 ;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은 국내수가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진행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서울부민병원(가양역)

강남병원(기흥역)

H+양지병원(신림역)

세란병원(독립문역)

안산한도병원(선부역)

※ 휴람의료네트워크병원은 휴람 고객을 최우선으로 one-so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주워싱턴 본부장
에스더 나

Tel : 206-779-5382
이메일 : skgid7700@gmail.com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휴람 의료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사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휴람은 상담 - 예약 - 검진진행 - 사후관리를 보호자 역할로서 도와드립니다."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1. 이학적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 7. 체지방검사 |
| 2. 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 | 8. 부인과검사 (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
| 3. 혈액검사 (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 9. 소화기검사 (수면 위내시경) |
| 4. 암표지자검사 | 10. 복부초음파검사 (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
| 5. 심폐기능검사 (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6. 요검사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 오전 4시간 49만원 ~ 110만원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14시 ~ 명일 12시경 퇴원 65만원 ~ 110만원

- 휴람 당일종합검진 + 수면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14시 ~ 명일 12시경 퇴원 115만원 ~ 186만원

- 휴람 숙박종합검진 + 뇌MRA, 심장CT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210만원 ~ 320만원

-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 뇌MRI, 심장초음파, 복부조영CT, 흉부(폐)CT
갑상선초음파, 경동맥초음파 +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2일간 진행(오전에만 검사 시행) 462만원 ~ 485만원

- 휴람 VIP종합검진 + PET-CT(전신암정밀검사), 복부비만CT, 관상동맥CT
뇌심장정밀혈액검사 + 2일간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해외동포 특별가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의료 네트워크 병원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 | |
|-------------------|-------------|
|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 세란병원(독립문역) | 안산한도병원(선부역) |
| 광동병원[양방&한방](봉은사역) | |



미주워싱턴 본부장
에스더 나

Tel : 206-779-5382
이메일 : skgid7700@gmail.com



챗지피티 등에 업은 '셀프 소송' 폭증... 미 법원, '가짜 판례' 폭탄에 골머리

- ▶ 비수감자 셀프 소송 비율 5년 새 11%→16.8%로 급증... "사법 접근권 확대 vs 시스템 마비" 양면성
- ▶ 챗지피티·클로드가 만든 가짜 판례 인용 속출... 미네소타 연방지법 셀프 소송 50% 증가
- ▶ 오픈AI에 '무자격 변호사 행위' 소송까지... AI 도구의 법적 책임 논쟁 본격화

미 미국에서 챗지피티(ChatGPT), 클로드(Claude)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해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이른바 '셀프 소송'(pro se)이 폭증하고 있다. 일반인이 한층 정교해 보이는 서면을 손쉽게 만들어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사법 접근권이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존재하지 않는 가짜 판례를 인용한 서면이 무더기로 접수돼 미 법원의 업무 부담이 한계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우려가 함께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5일 "변호사가 왜 필요한가, 챗지피티만 있으면 되는데"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한 셀프 소송 원고가 챗지피티와 클로드를 이용해 본 소장 외에 자신이 작성한 '판례 종합 분석'을 비롯한 추가 서면 50건을 한꺼번에 연방법원에 제출한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원고는 결국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AI는 내가 소송을 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였다. 아는 게 힘"이라고 말했다.

◆ 챗지피티가 부른 '셀프 소송' 폭증... 2025년 한 해 일반인 셀프 소송 49% 늘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박사 과정생 어낸드 V. 사 등이 진행한 미공개 연구(아직 동료 평가 전)에 따르면, 비수감자가 변호사 없이 직접 제기한 셀프 소송의 비율은 5년 전 미국 전체 민사 사건의 11% 수준에서 2025년 16.8%로 급증했다. 같은 연구는 셀프 소송 소장 가운데 AI 생성 텍스트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율이 2019년에는 사실상 0%였으나 2026년에는 18%를 넘어섰다고 분석했다. 연방법원 현장의 체감 증가폭은 더 가파르다. 미네소타 연방 지방법원에서 셀프 소송 서면 검토를 전

담하는 스티븐 도노후 변호사는 "2025년 3월 무렵부터 비수감자 셀프 소송이 약 50% 늘어났다"고 뉴욕타임스에 밝혔다. 분야별 통계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사용자 측 노동법 로펌 피셔 필립스는 지난해 노동 분야 셀프 소송이 한 해 전보다 49% 늘었다고 집계했다. 또 다른 로펌 세이파스 쇼는 공정 주택법(Fair Housing Act) 관련 셀프 소송이 2025년 1~9월 사이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69% 증가했다고 밝혔다.

피셔 필립스의 크리스틴 화이트 파트너 변호사는 "예전엔 셀프 소송이 드물었지만, 이제는 우리 사무실 모든 변호사가 최소 한 건씩 맡고 있다. AI 도움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사건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화이트 변호사는 셀프 소송 사건 방어에 일반 노동 사건보다 비용이 10~15% 더 든다고 덧붙였다.

이런 흐름은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반인에게 새로운 통로가 열린다는 의미를 갖는다. 미 시카고대 로리뷰가 1998~2017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셀프 소송 원고의 9%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날 만큼, 셀프 소송은 그동안 사실상 '불리한 싸움'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AI의 등장으로 일반인도 변호사 서면의 외형을 갖춘 문건을 생성할 수 있게 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 존재하지 않는 판례·왜곡된 인용... 제재금·소송 기각 잇따라 문제는 'AI 환각(hallucination)'이다. 생성형 AI 모델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그럴듯한 사건명, 판례집 권·페이지, 판결일까지 갖춰 만들어내기 일쑤다. 법률 기술 기업 디스코(DISCO)가 운영하는 'AI 환각 사건 데이터베이스'

에는 2026년 4월 기준으로 전 세계 법원·재판소가 AI 환각 문제를 다룬 결정이 1174건 등재돼 있다. 같은 데이터베이스는 2025년 한 해 미국에서만 셀프 소송 원고가 AI 환각 인용을 한 사례 294건을 확인했다.

콜로라도 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임차인-임대인 분쟁 사건 '알하임 대 스타 하스스톤'(AI-Hamim v. Star Hearthstone) 판결에서 셀프 소송 원고가 항소 서면에 가짜 판례 8건을 인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향후 같은 행위에 제재 가능성을 공식 경고했다.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3월 '앨런 대 캐스 캐스퍼'(Allen v. Cass Casper) 사건에서 가짜 판례를 거듭 인용한 셀프 소송 원고에게 변호사 보수와 비용 3178달러를 제재금으로 부과했다. 오클라호마 연방지법에서는 셀프 소송 원고의 AI 작성 신청서에 가짜 판례가 적발되자 상대방이 7000달러 제재를 청구한 사건도 있다. 미주리 항소법원은 이미 2024년 셀프 소송 원고에게 1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고 항소 자체를 '경솔하다'며 각하한 바 있다.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베라 스캔런 수석 치안판사는 최근 미국 변호사 협회(ABA) 회의에서 "셀프 소송 원고의 변론서 가운데 처음에는 매우 설득력 있어 보이던 답변서를 검토하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한 사실을 알게 된 일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인디애나주 해밀턴 카운티 순회법원의 앤드루 블록 판사는 "가족법 사건에서는 매일같이 AI가 작성한 서면을 본다. 챗지피티와 클로드가 만든 서면은 몇 가지 서식 특징만 봐도 알 수 있



[사진=AI생성이미지]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해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셀프 소송(pro se)이 폭증하고 있다

을 정도"라고 밝혔다. 판사 1인의 검토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셀프 소송 서면이 폭주하면서 일반 사건 결정이 늦어진다는 점도 문제다. 연구 책임자 가운데 한 명인 MIT의 어낸드 V. 사는 "판사도 하루 24시간뿐이다. 어딘가에서는 양보가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오픈AI '무자격 변호사' 소송... OpenAI "챗지피티는 사람 아닌 도구" AI 도구 자체가 법정에서 피고가 되는 사례도 나왔다. 닛폰생명보험은 지난 3월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챗지피티 개발사 오픈AI(OpenAI)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닛폰 측은 자사와 합의한 셀프 소송 원고 델라 토레가 챗지피티의 조언과 서면 대필을 이용해 합의 내용을 어기고 다시 소송에 나섰다"고 주장하며, 챗지피티의 행위가 △계약 관계에 대한 부당 간섭 △소송 절차 남용 △'무자격 변호사 행위'(unlicensed practice of law)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I 회사를 상대로 '무자격 변호사 행위' 책임을 직접 묻는 첫 번째 소송으로 평가된다.

오픈AI는 최근 법원에 낸 각각 신청서에서 "챗지피티는 '사람'이 아니라 학습한 자료를 토대로 가장 적절한 단어 배열을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도구일 뿐"

이라며 "일리노이 법이 규정하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AI 회사의 법적 책임 범위와 'AI가 법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본격적 법적 판단이 이뤄지는 첫 시점대가 될 전망이다.

연방 항소심도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 제7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월 AI 환각 인용이 의심되는 셀프 소송 원고에 대해 제재는 부과하지 않았으나, 항소를 기각하면서 "AI가 가져올 잠재력은 크지만 지금까지 소송에서 드러난 결과는 부정확한 사실·법률 진술 사례를 보여준다. 셀프 소송 당사자들이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법원은 이러한 위험을 점점 더 자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법원·법률 전문가들은 현재의 'AI 셀프 소송' 현상을 사법 접근권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과 가짜 판례·서면 폭주에 따른 사법 시스템 부담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진행 중인 과도기로 보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법원과 입법부가 'AI 작성 표시 의무화', 'AI 서면 별도 심사 절차' 같은 새로운 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시애틀코리아데일리>

JEIL TV 제일티비 KOREA TV 한국 티브 방송 실시간 시청

58개 채널 실시간 생방송 제공 모든 채널의 재방송 시청 가능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생방송: 드라마, 오락, 영화, 뉴스, 스포츠, 어린이, 해외드라마, 종영드라마까지 풍부한 콘텐츠

KBS	MBC	SBS	EBS	tvN	YTN	Mnet	inet-TV	OCN	CTS	JEI 제능
SBS	KBS	KBS2	MBC	EBS	YTN	MBN	CHA	OCN Movies	OCN Thrills	
연합뉴스	YTN	JTBC	OCN	TOONIVERS	TVN	OCN Movies	CHA	OCN Thrills	OCN Thrills	
TV조선	TVN	OCN	OCN Movies	KBS Kids	SCREEN	OCN Movies	CHA	OCN Thrills	KBS Kids	
재능 TV	EBS2	EBS English	TOONIVERS	KBS Kids	MBC 스포츠	EBS English	CHA	OCN Thrills	KBS Kids	
MBC 스포츠	SBS GOLF	JTBC GOLD	SBS 스포츠	KBS 스포츠	SPOTV ON	JTBC GOLD	CHA	OCN Thrills	KBS 스포츠	
SPOTV ON	MBC 스포츠	JBC GOLF&스포츠	SPOTV2	KBS 스포츠	MNET	JBC GOLF&스포츠	SPOTV	OCN Thrills	KBS 스포츠	
BILLARDS TV	CH NOW	TVN Show	TVN Story	KBS 스포츠	BILLARDS TV	TVN Show	INET	OCN Thrills	KBS 스포츠	
MBC DRAMA	NATIONAL	JTBC2	FTV	KBS 스포츠	MBC DRAMA	JTBC2	바둑TV	OCN Thrills	KBS 스포츠	
BTN	KBS joy	CHING	SBS PLUS	KBS 스포츠	BTN	CHING	KBS DRAMA	OCN Thrills	KBS 스포츠	
매일경제TV	CNTV	PBC	BBC	KBS 스포츠	매일경제TV	PBC	CTS	OCN Thrills	KBS 스포츠	
	MBC	SBS	KBS1	KBS 스포츠		SBS	KBS2	OCN Thrills	KBS 스포츠	

가격할인 이벤트

3개월 \$ 90
6개월 \$ 180
1년 \$ 330

Set top Box \$70 → \$50

Free Shipping(미국 내 only)
Free Activation

Cell: 702-937-4616 Email: koreatvjeiltv@gmail.com 카카오톡: Koreatvjeiltv (문자 & 보이스톡 가능)

벼룩시장

J&J CLAIMS 지원자 모집

현재 J&J CLAIMS (www.carcrashwa.com) 팀에 합류할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직무:
개인 상해 (자동차 사고 등) - 2명
일반 소송 (법률 보조) - 1명
▶근무지: 다운타운 타코마 (IRS 빌딩 6층)
▶자격 요건: 영어/한국어 가능 기본 컴퓨터 활용 능력 (MS Word, Excel 등)
▶근무 시간: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00 - 오후 5:00
▶근무 환경: 실내주차장 제공, 깨끗한 주변, 안전한 근무 환경
▶페이조건: \$22~\$52.08 +
▶업무 내용: 고객 (병원 등)과의 소통/병원 및 고객 관련 문서 관리 및 정리

지원 방법: 이력서 또는 자기소개서를 sung@carcrashwa.com으로 제출해 주세요.

북경가든 주방장 구함

주방장 구함

타코마 팔도월드(Food Court)

253.588.2399

Auburn 하우스 렌트

Gated 커뮤니티 2bed, 1den, 2.5bath, 주차장(차2개 주차) 마스타 bed 1층 위치, 월렌트 \$2,750, 수도, 하수도, 잔디관리비 포함(월\$250)
Total: \$3,000

연락처 206-356-2388 (메세지)

박스광고

\$80 / 4회

206-779-5382

단독 별채 (Separate Unit) 임대

페더럴웨이 TJ High School 근처에 있는 단독 별채를 렌트합니다. 3Bedroom과 욕실 1.5개(1 full+half), 넓은 거실과 주방을 갖추고 있습니다. 약 1,300sqft 넓은 집이며, 렌트비는 월 \$1,850(유틸리티/공과금 별도) 6월 4일 이후 입주 가능

253-332-5332

Shin's Wellbeing Food

shinwellbeingfoods.carrd.co
김치 Specialist
무설탕, NO MSG, 한국 고추가루사용
천연재료만으로 맛을 낸 믿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김치 배달합니다.

206-887-3088 (카톡주문 가능)

조선용보험에서 함께 성장하실 에이전트 및 office assistant를 찾습니다.

영어, 한국어 사용
컴퓨터 사용 (Excel, Word)
메디케어, 워싱턴 헬스 플랜 중점 취업가능자 (full time/ part time)
베네핏 가능, 영문 이력서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5.951.9210
justinc@evergroup.us
4713 168th St SW Ste 103 Lynnwood, WA 98037

페더럴웨이 경치좋은 레돈도 비취에 있는 1층 전체 렌트

화장실1, 방1, 거실
인터넷 설치 완비
금연자 환영. \$950/M.

213-819-2556

구인

H-mart Tacoma 구인
지원자격: 미국내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자

지원부서: Cachier, Bakery, Deli

근무조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점심 제공

(425) 312.4588

공항 Pick Up

공항 Pick Up 또는 라이더 필요하신분 어디든지 갑니다

253-337-7209

[구인] Park Chenaur and Associates, LLP

법률 보조 / Legal Assistant (한·영 능통)

Federal Way 소재 개인상해 로펌에서 .한국어·영어 능통자를 찾습니다. 풀타임 사무실 근무 연 \$40,000~\$50,000

무료상담

편안한 집에서 외롭고 힘들고 지친 이민생활과 가정, 자녀, 신앙 등에 관한 무료상담해 드립니다.

253-503-9984

주유소 파트타임

(주 3~4일)
일하실 직원분 구합니다.
디모인스 (Sea Tac 근처)지역 (전화, 문자)

206-334-7532

한국식당 장비판매

바베큐 테이블 set 신제품 20개 (마블10개/ 체리10개), 냉면 육수 냉장고, 스시 케이스 5ft, 파저리 기계, 등.. 한국바베큐식당에 필요한것 모두 있습니다.

253-754-5243

뷰티 서플라이 일하실 분

뷰티 서플라이에서 일하실 분 경험자 우대 full or part time

253 228 4727 / 504 444 7453

업무: 고객·변호사 소통, 서류 / 기록 관리, 사건 진행 보조
자격: 한국어 필수, 컴퓨터 활용 능력, 꼼꼼함·책임감
우대: 법률사무소/사무직/고객응대 경험

혜택: 건강보험, 401(k), 유급휴가 등

문의: (253) 461-0810 및 Indeed.com 참조

렌트

벨링햄 방 한개만 사용할 학생 \$800/월

(253) 334.6078

차량 판매

2014년 형 렉서스 CT 200h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합니다. 원래 오너가 곱게 타던 무사고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색깔은 빨간색

206.670.8654

룸렌트

타코마 신신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실 캐쉬어/세일즈/창고 직원 원합니다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이메일 : twin0418@aol.com

(253) 582.2975

스페이스 리스

스노퀼미 마켓 Empty Space 렌트 스노퀼미역 바로 앞/스노퀼미 폭포 관광지에서 1마일 / 커피, 빵 스무디 등의 비즈니스에 적합 Set - Up 공사기간 3개월 FREE Rent, 1,895 Sqft 렌트비 : \$3,947+ NNN

(206) 496.7060

아파트 렌트

▶방1, 큰화장실1 유틸리티 \$150 렌트비\$1,500

▶방2, 화장실1 유틸리티\$150 렌트비\$1,500

방 렌트

씨택 공항 근처 렌트비: 750불(유틸리티 포함) 남학생, 직장 다니시는 분 환영. 금주, 금연 하시는 분 환영

206-679-9208

간병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청소/요리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라이드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항시 남/여 일할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253) 571.8080

로맨틱 소개팅 (결혼정보)

당신에게 맞는 짝이 있습니다 커플메니저가 좋은 만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253) 571.8080

병원 스페이스 렌트

L.Ac, DPT, LMT
Office space for Rent 815 sqft (Including rooms, recreation rooms, and bathrooms)

253-941-6779
Email:chachiropractic@gmail.com

▶방1, 화장실1 유틸리티 \$100 렌트비\$1,200

신축, 좋은 로케이션 (타코마 부한 바로 옆)

253-302-7095

박스광고 \$80/4회 206-779-5382

전 CIA 고위 관료 집에서 금괴 303개 · 롤렉스 35개... 4,000만 달러 빼돌렸다

- ▶ 전 CIA 고위 관료 데이비드 러시, 5월 19일 4,000만 달러 금괴 절도 혐의로 체포
- ▶ 자택서 1kg 금괴 303개 · 현금 200만 달러 · 롤렉스 35개 등 압수
- ▶ 클렘슨 · 해군 조종사 학력 · 경력 모두 위조 의혹... "CIA 내부 조사 뒤 FBI에 신고"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CIA) 고위 관료가 4,000만 달러어치 금괴를 빼돌린 혐의로 체포됐다. 자기 사무실 인근 창고와 자택에서 1kg짜리 금괴 303개와 현금 200만 달러, 롤렉스 손목시계 35점이 무더기로 나왔고, 그의 군 경력과 학력까지 상당 부분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키우고 있다.

◆ 1kg 금괴 303개에 롤렉스 35개... "역대급" 압수 현장 연방 법원 자료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애슈번에 거주하는 데이비드 J. 러시(David J. Rush)는 지난 5월 19일 공공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 CIA 고위공무원단(SES)급 관료로 1급 비밀(Top Secret/SCI) 보안 인가까지 보유했던 인물이다. 워싱턴 D.C. 인근에서 활동했고, 현재는 알렉산드리아의 버지니아주 동부지구 연방법원에 송치돼 구금 중이다. 보석 여부를 결정할 구금 심리는 6월 5일로 연기됐다. 체포 하루 전인 5월 18일 FBI는 러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현장에서는 1kg짜리 금괴 303개와 외화 · 미국 달러 합쳐 약 200만 달러의 현금, 롤렉스 등 명품 시계 35개가 쏟아져 나왔다. FBI 워싱턴 지부 방첩과 매슈 T. 존슨 특별수사관

이 작성한 진술서는 압수된 금괴의 시가를 4,000만 달러 이상으로 산정했다. 다만 이번에 회수되지 않은 자금이 추가로 더 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수사의 발단은 CIA 자체 내부 조사였다. CIA와 FBI는 공동 성명을 통해 CIA 내부 조사에서 잠재적 법 위반 정황이 포착되자, 존 랫클리프 CIA 국장이 FBI에 사건을 의뢰해 형사 수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법무부와 함께 사건 전반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업무 경비"라며 4개월간 빼낸 금괴 진술서에 적힌 범행 흐름은 단순하지만 그 규모가 비상식적이다.

러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업무 관련 경비' 명목으로 상당량의 외화와 수천만 달러어치 금괴를 신청해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금이 정확히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이었는지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그 일부는 자신의 사무실 가까이 있는 창고에 보관돼 있었고, 나머지 상당량이 그대로 그의 버지니아 자택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수사 당국의 판단이다. 해외 비밀 작전이나 정보 활동을 위해 추적이 어려운 형태의 자금이 필

요할 때, CIA는 금괴나 외화 같은 형태로 자금을 운용해 왔다. 러시는 이런 자금 흐름에 접근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권한이 사적인 축재의 통로로 이용된 정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압수 목록에는 의외의 품목도 다수 포함됐다. 금괴 외에 200만 달러에 달하는 미국 달러 현금이 압수됐고, 롤렉스를 비롯한 고급 손목시계 35점도 함께 발견됐다. 한 정부 고위 관료의 자택에서 발견된 자산이라기에는 상식적인 수준을 한참 벗어난 규모다.

◆ 클렘슨 학위에 해군 조종사까지... 학력 · 경력 위조 정황 수사 과정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다. 러시가 학력과 군 경력 상당 부분을 위조해 미국 정부에 입성했다는 정황이다. FBI는 러시가 1997년 미 해군에 입대할 당시 클렘슨 대학교(Clemson University) 학사 학위를 받았다는 위조된 성적표 등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허위 학력을 근거로 그는 2004년 해군 예비역 소위로 임관했고, 2015년 명예 전역했다. 이후 그는 연방 정부 일자리에 차례 지원해 2009년 채용됐고, 이후 승진을 거듭해 고위공무원단까지 올랐다.



데이비드 J. 러시는 지난 5월 19일 공공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

입사 지원서에는 클렘슨 대학교, 렌슬리어 폴리테크닉 인스티튜트(RPI), 미 해군대학원 등 명문 학위를 줄줄이 적었다. 자신을 해군 조종사로 소개했고, 145명 규모 · 항공기 18대를 거느린 미군 합동 부대의 '테스트 디렉터'를 맡고 있다는 식의 화려한 경력도 내세웠다. 미 공군 시험비행조종사 학교 출신이라는 주장까지 덧붙였다. 문제는 어느 것 하나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해군은 그가 정보체계 기사 등의 직무로 복무했다고 수사 당국에 확인해 왔고, 그가 다녔다고 주장한 대학들도 그런 학생이 다닌 기록이 없다고 답했다. 군 시험비행조종사 학교 졸업이라는 화려한 이력 역시 허위로 드러났다. 결국 그는

가짜 학력 · 경력으로 1급 비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리에 올랐고, 그 권한을 이용해 다시 정부 금고의 금괴를 자기 집으로 옮긴 셈이다. 미국 정보 당국이 자체 조사로 사건을 적발하고 곧바로 수사 기관에 넘긴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어떻게 학력 · 경력 위조가 입사 단계와 보안 심사를 모두 통과해 SES급까지 오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그대로 남는다. 미국 의회와 정보기관 감독 기구가 채용 · 승진 검증 체계의 허점을 어떻게 점검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러시는 공공 절도 혐의 한 건으로 기소된 상태이며, 추가 혐의가 더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시애틀코리아데일리>

마른 당뇨 환자에게도 희소식...오메가-3, 인슐린 저항성 낮춘다

- ▶ 비비만형 2형당뇨 환자에게도 오메가-3 효과 확인
- ▶ 혈당 · LDL 콜레스테롤 · 중성지방까지 동시 개선
- ▶ 면역세포 전환이 핵심...향후 임상시험 과제로

생선기름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비만하지 않은 2형당뇨 환자에게도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혈당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브라질 연구팀이 국제 학술지 뉴트리언츠(Nutrients)에 발표하고 사이언스데일리가 5월 31일 소개한 이번 연구는, 그동안 비만 환자 위주로 연구돼 온 오메가-3의 당뇨 관련 효능이 정상 체중의 당뇨 환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 전 세계 당뇨 환자의 10~20%는 '마른 당뇨' 2형당뇨는 흔히 비만과 연결지어 이해되지만, 전 세계 2형당뇨 환자의 10~20%는 비만하지 않다. 이른바 '마른 당뇨'로 불리는 이 유형은 비만형 당뇨와 인슐린 저항성의 발생 경로가 달라 기존 치료 접근법이 충

분히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오메가-3의 당뇨 관련 연구들도 대부분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비만형 환자에 대한 효과는 상대적으로 규명이 덜 된 상태였다. 미국당뇨병협회(ADA) 역시 현재까지는 당뇨 환자에게 오메가-3 보충제를 별도로 권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정 성분을 고농도로 섭취하는 것보다 식단 전반을 조정하는 것이 혈당 관리와 합병증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8주 투여로 혈당 · 콜레스테롤 · 염증 지표 모두 개선 연구팀은 비만 없이 2형당뇨와 유사한 대사 상태를 보이는 고도-가카자키(Goto-Kakizaki)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체중 1킬로그램당 2그램의 생선기름을 8주간 주 3회 경구 투

여했으며, 생선기름에는 에이코사펜타엔산(EPA) 540mg/g, 도코사헥사엔산(DHA) 100mg/g이 함유됐다. 실험 종료 후 오메가-3를 투여한 쥐들은 인슐린 저항성 수치가 낮아지고 혈당이 개선됐을 뿐 아니라,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도 함께 하락했다. 염증 관련 지표 역시 유의미하게 개선됐다. ◆ 핵심은 면역세포의 전환...염증 억제 경로 새로 확인 연구팀이 주목한 것은 오메가-3가 면역세포의 성격 자체를 바꿨다는 점이다. 염증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활성화돼 있던 티(T) 림프구가 오메가-3 투여 후 염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연구팀은 이 면역 조절 효과가 인슐린 반응을 개선하는 핵심 경로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연구는 동물 실험 단계에 머



[사진=신문사DB] 염증 감소에 효과적인 생선(연어, 청어, 고등어, 참치), 계란, 견과류(특히 호두), 씨앗(아마씨와 대마씨 등)

물러 있어 인간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추가 임상시험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비비만형 2형당뇨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 접근법 개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12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한 기존 메타분석에서는 오메가-3 섭취가 혈당 수치에 뚜렷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상반된 결과도 있어, 오메가-3의 혈당 조절 효과를 둘러싼 학계의 논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시애틀코리아데일리>

A

ALABASTER & PRAUS

CONTRACTING · CONSTRUCTION · DEVELOPMENT

www.alabaster.llc

☎ 무료 상담

(206) 512-0959

한국어 상담 가능

날씨 좋을 때 고쳐야 후회 없다

시애틀 외장공사,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 — 지붕·사이딩·드라이브웨이·거터까지

Alabaster & Praus | 한국어 상담 가능 | 무료 현장 견적 | 워싱턴주 면허 보유

■ 시애틀의 짧은 '황금 시즌', 놓치면 1년을 기다린다

시애틀의 봄·여름은 집을 손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다. 길고 습한 우기가 시작되기 전, 지금 이 시기에 외장 상태를 점검하고 보수하지 않으면 빗물 침투, 목재 부식, 기초 균열로 이어지는 '눈덩이 수리비'를 감당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외장 공사는 타이밍이 전부"라고 입을 모은다.

Alabaster & Praus 는 바로 이 시즌에 맞춰 외장 전 공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지붕 교체부터 사이딩, 드라이브웨이, 거터(물받이)까지 — 집의 '겉데기' 전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Alabaster 의 강점이다.

■ 공사별 핵심 포인트

🏠 지붕 (Roofing)

시애틀의 연간 강수량은 전국 평균을 훌쩍 넘는다. 지붕 싱글이 낡거나 들뜨기 시작했다면 이미 늦은 것이다. 누수는 단열재, 천장, 전기 배선까지 피해를 확산시키기 전에 반드시 선제 대응해야 한다. Alabaster 는 정밀 점검 후 부분 보수 또는 전면 교체를 명확히 제안한다 — 불필요한 공사는 권하지 않는다.

🏠 사이딩 (Siding)

외벽 사이딩은 집의 단열 성능과 직결된다.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패널이 뒤틀렸다면 열손실과 습기 침투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는 신호다. Alabaster 는 다양한 사이딩 소재(파이버시멘트, 비닐, 목재 등)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제공하며, 집의 스타일과 예산에 맞는 최적안을 함께 찾아준다.

🚗 드라이브웨이 (Driveway)

균열이 간 드라이브웨이는 단순히 보기 흉한 것을 넘어, 시애틀 특유의 겨울 동결-해동 반복으로 균열이 급속도로 확대된다. 적기에 보수하거나 재포장하면 향후 수천 달러의 추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집의 첫인상이자 자산 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간인 만큼 소홀히 할 수 없다.

🌧️ 거터·물받이 (Gutters & Downspouts)

거터는 집 전체를 물로부터 지키는 최전선이다. 막히거나 처진 거터는 지붕 끝단 부식, 외벽 얼룩, 심할 경우 기초 침수까지 유발한다. Alabaster 는 거터 청소·보수는 물론, K-스타일 및 하프라운드 등 신규 설치까지 모두 처리한다.

■ 왜 Alabaster & Praus 인가

공사는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결과를 결정한다. Alabaster & Praus 는 워싱턴주에서 시공·개발·신축을 전문으로 해온 팀으로,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이 현지 한인 커뮤니티에서 특히 신뢰를 얻는 이유다.

- 지붕·사이딩·드라이브웨이·거터 전 공정 원스톱 처리
- 공사 전 무료 현장 점검 및 견적 제공
- 워싱턴주 라이선스 보유, 보험 완비
- 한국어 상담 가능 — 복잡한 공사 용어, 편하게 물어보세요

■ ADU 투자도 놓치지 마세요

단 5% 다운페이먼트로 시작하는 ADU 프로젝트. 뒷마당이 매달 수천 달러를 창출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변모합니다. 선착순 30명 무료 부지 진단 서비스 — 지금 전화하세요: (206) 512-0959

☎ 지금 바로 무료 점검 신청하세요

날씨 좋은 지금이 1년 중 가장 현명한 타이밍입니다. 고민하는 사이 시즌은 끝납니다.

Alabaster & Praus | 직통: (206) 512-0959 | 한국어 상담 가능 | www.alabaster.llc

GMART
www.hmartus.com

7 DAYS SALE

JUN 5TH - JUN 11TH, 2026

일주일 내내 매일할인
(야채부/정육부는 4일만 진행)



Hello Sunshine

쿨~한 특가전



350g
한상
SPICY EPICURE
통우일장
매운맛 짬뽕
7.98 EA



NEW
TACKI JOY PEACH
75g 2종
HO
아이스크림
7.98 EA



3LBS
비비고
왕고자
9.98 EA

HOT DEALS



4LBS
FREEBAY
50/60 머리새우
12.98 PK



290g
레몬랜드
낙지볶음
6.98 PK



ONLY 4 days 금/토/일/월
NATURAL PORK
생수육용
오겹살
4.98 LB



ONLY 4 days 금/토/일/월
4LBS
퀵슈머
백/황도복숭아
11.98 BOX

PRODUCE SALE 야채

ONLY 4 days 금/토/일/월



타미망고
10.98 BOX



하미멜론
1.28 LB



아보카도
0.68 EA



리치
3.48 LB



제스프리 골드 키위
5.48 PK



와우 만다린
2.78 LB



주키니
0.78 LB



150g
해물버섯
0.78 EA



그린빈
1.78 LB



시금치
1.28 EA



통마늘
1.28 EA



한국오이
1.48 LB

MEAT DEALS 정육

ONLY 4 days 금/토/일/월



U.S.D.A. PRIME
프라이름
생갈비살
쿠이용
15.98 LB



CHOICE
앵거스초이스
우삼겹살
8.98 LB



QUALITY 1
소고기 스투
3.98 LB



NATURAL PORK
BBQ용
삼겹살
6.48 LB



NATURAL PORK
대패
삼겹살
7.48 LB



NATURAL PORK
냉장
돼지불고기
4.48 LB



NATURAL PORK
돼지
등갈비
5.48 LB

GROCERY DEALS 식료품

 20LBS (HOMAI) 백미 13.98 BAG	 15LBS (삼수갑산) 찹쌀 12.98 BAG	 12pk/210g (오뚜기) 수향미 백미밥, 현미밥 15.98 BOX	 4pk/120g (농심) 신라면 15.98 BOX	 2,87LBS (초립동이) 우리밀두부만두 3종 4.98 EA	 350g, 450g (한상) 강릉시장전 5종 한입전 4.98 EA
 6pk/105g (팔도) 컵라면 5종 9.98 BOX	 4pk/4.23oz (농심) 라면세트 4종 3.98 EA	 568g~632g (키다리) 3종 휴게소우동 4.98 EA	 506g, 1.02kg (초립동이) 냉면 2종 3.98 EA	 120g (동원) 4종 떡볶이 1.98 EA	 160g (한상) 3종 점보삼각김밥 2.98 EA
 446g (고래사) 꼬치어묵 5.98 EA	 340g (백설) 비엔나 소세지 2종 5.98 EA	 2.2LBS (대립선) 게맛살큰잔치 4.98 EA	 425g (SD) 메추리알캔 1.98 EA	 1LB (초립동이) 몸에좋은 고등어3마리 8.98 EA	 14oz (플라버드) 명란젓 9.98 EA
 227g (초립동이) 황태채 9.98 EA	 1.1LB (샘표) 냉동냉동 유채꽃나물 2.48 EA	 500ml (샘표) 연두 연두순 4.98 EA	 3kg (해찬들) 3종 고추장 13.98 EA	 240g~325g (한상) 5종 전통떡 2.98 EA	 225g, 375g (삼립) 레디비 파배기 토너츠 5.98 EA
 75g, 85g (삼립) 크림빵 단팥빵 1.98 EA	 12pk/23g (오리온) 카스타드 2종 3.98 EA	 115g (오리온) 3종 대형 오뚜브 2.48 EA	 205g (정성) 전병 3종 1.98 EA	 1.5L (프레코) 알로에 드링크 7종 1.78 EA	 12can/238ml (해태) 포도봉봉 갈아만든배 10.98 BOX


SEAFOOD SALE 수산

 1.1LB (JAEHO) 왕우렁이살 5.78 PK	 170g (청해거상) 냉동전복 3피 11.98 PK	 1.1LB (POLARBIRD) 오징어 9.98 PK	 3.3LB 다시멸치 32.98 BOX
--	--	---	---

DELI SPECIALS 반찬

 290g (레몬랜드) 계란장조림 4.78 PK	 120g (레몬랜드) 마늘쫄무침 2.48 PK	 150g (레몬랜드) 청양초간장고추 2.78 PK	 220g (레몬랜드) 호박두릅떡 3.98 PK
--	---	---	--

KITCHEN & HOME DEALS 생필품

 250ml (박준) LPP 리페어링 트리트먼트 9.28 EA	 200ml (박준) 프로틴 LPP 트리트먼트 오렌지 9.28 EA	 1L (애경) 순샘뽀독 주방세제 리필 6.48 EA	 1N~N6, N8 (꽃남) 오징어머물 염색약 7종 5.98 EA
--	--	--	--

NEW ARRIVAL
SHOP NOW!

염집 꽃님이네 도시락김, 김자반

라이프컬처 꿀이구마 호박찰쌀약과

OPEN 365 DAYS
8AM - 9:30PM

MORE DEALS IN-STORE!
VISIT YOUR NEAREST LOCATION

Bellevue | Federal Way | Lynnwood | Redmond
Tacoma | Ballard | Lynnwood Gmart (8am-9pm)

과 UW Seattle 매장은 제외됩니다. 프로모션 제품은 조기 품절되거나, 수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품이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광고물의 사용에 대한 법적 권한은 H MART에 있습니다.

* UW and Seattle (2nd & Pine) stores are excluded from the sale.

미디어한국

MEDIA HANKOOK

시애틀 No.1 한인 여행사



드림투어

206.200.3113

주소: 31434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

정확한 진단, 빠른처리, 안전한 시공



OK Handyman

페인트 · 보일러 · 펜스
데크 · 각종 집수리 등

Cell 206.306.6700 | 206.779.5382
Email skgid7700@gmail.com

연금저축보험 / 대학자금 / 일반연금 / 암보험



조요섭 종합보험

자동차 사업체
주택 생명보험

문의 253.459.9800
개인별 맞춤설계 / 외사별 비교견적 / 신속상담

최고 실력, 최고 부품사용 개런티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비 서비스!

One Stop **Tony's**
그린우드 종합정비 그린우드 오토바디

Tel. 206-706-2778
8208 Greenwood Ave N, Seattle, WA 98103

20년의 경력과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일하는



김연정 부동산

YON KIM Managing Broker
Best Choice REALTY

253.227.6673
yon@bestchoicerealtywa.com



'비주얼라이징 코리언 시네마' 성황리 마무리

지난 5월 29~30일 벨뷰 벨레드 아트 스튜디오에서 개최...시애틀 총영사관 후원 한국영화 장면 회화로 재해석...영상 언어를 색과 구도로 번역한 문화 교육 시도

한국 영화를 주제로 한 학생 미술 전시 '비주얼라이징 코리언 시네마(Visualizing Korean Cinema)'가 지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벨뷰 벨레드 아트 스튜디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주시애틀 총영사관과 인커리지 아트, 벨레드 아트 디스트릭트가 공동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구광일 시애틀 문화담당 영사를 비롯해 30여 명의 관람객이 참석했다. <기사·사진=시애틀코리아데일리 김승규 기자> <관련기사 Page-27>

"친절하고 성실한 메디케어 전문"

메디케어 상담전문 **이영이 보험**

206.407.8478
youngyi712@gmail.com

가정의학 / 소아과 / 부인과 / 노인과 / 내과 / 정신건강 / 응급치료 / 각종예방접종



채정희 클리닉

ADVANCED FAMILYCARE MEDICINE

모든보험 | 스킨케어
원격진료 (Virtual Care) 가능

"10여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친절하게 진료해드립니다."

☎ 253-314-5742 레이크우드 부한플라자 내에 위치

광고 문의 206.779.5382



패티임 보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은퇴준비, 노후계획 무료상담

253-632-8904
생명보험/은퇴플랜/401K 롤오버/메디케어
E-mail : girlpatti1@gmail.com

벤슨 종합 동물병원
Animal Clinic of Benson

정확한 진단과
전문적인 케어
믿고 맡길 수 있는
번려동물 의료서비스

Dr. Simon Kim & Dr. Jaysoo Lee
Advanced Veterinary Care
animalclinicofbenenson.com

첨단 수의학 진단 · 치과 · 종합검진 · 내과 · 정형외과 · 초음파 · 일반외과 · 국외 통관

10700 SE 208th St #204
Kent, WA 98031 253-852-6330

2027년 통합업소록과 함께하세요

통합한인업소록

리스팅 · 광고접수

www.haninsosik.com
문의 : 206-779-5382

믿고 상담할 수 있는 친절한



김양미 보험

메디케어전문

매년감 의료
통역경력 206-679-8301
getcare8282@gmail.com

주방장 구함

Peking Garden Chinese Restaurant

북경가든

여기!

맞습니다! 워싱턴주에서
짬뽕과 짜장면이 제일 맛있는 집

예약/주문
253.588.2399



타코마 팔도월드(Food Court) 9701 So. Tacoma Way #115 Lakewood, WA 98499



L&I CLAIMS CENTER

YOU WORKED. YOU DESERVE TO GET PAID.

일한 만큼, 반드시 받으세요!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보복 조치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L&I CLAIMS CENTER가

당신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회계사 + 변호사 팀

- ✓ 정확한 임금 계산
- ✓ 강력한 법률 전략



최소 리뷰비용
+ 성공보수제
승소 시에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빠른 대응
24~48시간 내
상담 가능!

무료 상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 ✓ 비용 걱정 없이 상담 가능
- ✓ 당신의 상황을 비밀로 보호
- ✓ 전화 한 통으로 권리 확인!

☎ 253 313-2738



혹시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현금 지급으로
기록이 없음



부당 해고



신고 후
보복 조치



급여 누락 또는
부당 공제

저희가 도와드리는 과정

1



사례 검토
당신의 상황과
기록을 분석합니다.

2



정확한 금액 계산
놓친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회계사 지원)

3



클레임 진행
L&I 클레임 접수부터
협의까지 진행합니다.

4



보상 회수
당신의 정당한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실제 사례로 증명합니다!

\$65,908.03 회수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Restaurant Worker
Seattle, WA

\$47,834.37 회수
보복 조치 및 임금 체불

Construction Worker
Tacoma, WA

\$24,649.27 회수
현금 지급 및 급여 누락

Restaurant Worker
Tacoma, WA

\$27,800 회수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Warehouse Worker
Kent, WA

당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로
내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253 313-2738

무료 상담 | NO FEE UNLESS WE WIN



Washington State 전역 서비스

Seattle | Tacoma | Bellevue | Everett | Spokane | Vancouver



L&I CLAIMS CENTER



주요 서비스

- ✓ 임금 체불 클레임
- ✓ L&I 클레임
- ✓ 부당 해고
- ✓ 보복 조치
- ✓ 독립 계약자 클레임



왜 저희인가요?

- ✓ 회계사 + 변호사 팀의 전문성
- ✓ 정확한 임금 계산
- ✓ 빠른 대응과 소통
- ✓ 한국어 & 영어 지원
- ✓ 성공을 위한 전략적 접근



부동산의 모든 것, 구매와 매매의 전 과정을 시작에서 끝까지 완성합니다.

Built on Trust. Completed with Value.

김수영

206.999.7989

sykbellevue@gmail.com



Designate Broker
대표.책임 공인중개사

“이사철의 계절, 집 장만의 계절”

주택 ◆ 커머셜 (호텔, 모텔, 주유소, 투자성건물) ◆ 사업체 EB-5 (투자이민) ◆ E2 (소액투자) ◆ 부동산관리

**Bainbridge Island 상가건물 & 61,855 sf.
상가건물건축 가능한(NSC)대지**

\$1,890,000



- ▲ 건물 6,000sf · 대지 61,855sf(1,738평) ▲ Fully occupied, gross \$20 매우 낮은 월세 ▲ 동네 유일 성업중 그로서리
- ▲ 주차 43대 가능 ▲ 20년 영업 유명 이태리언 식당 ▲ Upholstery 및 주차장 수입 포함 ▲ 현재 월 렌트 \$9,200 (곧 대폭 상승 예상) ▲ 오지 사거리 중심 Mixed Use Zone ▲ 상가·사무실·콘도·Storage 개발 가능 ▲ 유입인구 증가, 미래 투자성 높은 부동산 ▲ 우체국·법원·교회 인접 중심지

벨뷰콘도(Mira Bellevue)

\$1,340,000



- ▲ 벨뷰 다운타운 벨뷰 스퀘어 건너편 Mira 콘도
- ▲ 방 3개, 화장실 2개, 차고 1, 창고 1, 1,191sf
- ▲ 벨뷰 중심지에 위치한 편리한 지역
- ▲ 쇼핑, 병원, 공원, 호수 가까운 조용한 지역
- ▲ 현재 월 \$3,850 렌트 수입, 2027년 7월까지 리스돼 있는 상태

Lakewood 시, 고급한식 식당

- ▲ 매상: 월 12만불, 일매상 \$3,800
- ▲ 장비: 모든 장비와 시설은 최고상태
- ▲ 사이즈: 3,050 sf.
- ▲ 렌트: \$5,500 (NNN 모두 포함됨)
- ▲ 리스: 5-5 가능
- ▲ SBA 용자 가능.
- ▲ 경험있는 새주인에게 적합

\$480,000



최고급 시설 담배가게

- ▲ Richland (트라이 시티) Safeway 건물 내 위치.
- ▲ 월매상: \$80,000-\$85,000
- ▲ 사이즈: 2,000 sf.
- ▲ 렌트: \$4,080 (NNN 모두 포함 됨)
- ▲ 리스: 3.5+5
- ▲ Absentee-owned business
- ▲ 인벤토리 약 \$100,000 (주인용자 가능)

\$300,000



김기호

253.651.3777
khkhelix@gmail.com



강력한 협력팀 ● 용자팀: 주택용자 비영주권자 용자 상업 용자 ● 스테이징 서비스 ● 전문 사진사 ● Property management 자매회사 ● 핸디맨/건축회사

김수영
부동산
주택 | 커머셜 | 사업체

206.999.7989

Designated Broker
워싱턴주 부동산 경영인 협회 2018 회장
sykbellevue@gmail.com



1085 103rd Ave NE Bellevue, WA 98004
최신 리스팅과 정보는 sueyoungkim.com 에서 확인하세요



FEDERAL WAY YOUTH SYMPHONY ORCHESTRA

20TH

MUSIC DIRECTOR
RYLAN VIRING

ANNIVERSARY CONCERT

CELEBRATING AMERICA'S 250TH
YEAR OF INDEPENDENCE

**JUNE 6TH
SATURDAY
AT 4PM**

**LOCATION:
PERFORMING ARTS AND
EVENT CENTER (PAEC)**

31510 PETE VON RIECHBAUER
WAY S.
FEDERAL WAY WA 98003



**SPECIAL GUESTS FROM SOUTH KOREA:
HANSOUND ENSEMBLE**



주시아틀 대한민국 총영사관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eattle



CITY OF
Federal Way
Arts Commission



CULTURE

제1회 “디아스포라” 사진공모전

우리의 뿌리, 우리의 땅
태평양 너머 한인의 이야기
2026년 제14회 한국문화주간 상반기 행사



● 공모 주제

- 1. 디아스포라 한인의 정체성** 가산점부여
(타국에 뿌리내린 삶, 기억, 문화, 세대의 이야기)
- 2. 미국 독립 250주년과 한국인** 가산점부여
(미국 사회 속 이민의 역사와 오늘의 역할)
- 3. 서북미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
(아름다운 자연과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이야기)

● 응모 요강

- **응모대상** : 서북미 지역 거주 한인 및 비한인 누구나
(워싱턴, 오리건, 아이다호, 알래스카, 몬태나, BC 등 / 연령·경력 제한 없음)
- **촬영장비** : 스마트폰, 드론, 디지털 및 필름카메라 모두 가능
- **접수기간** : 2026년 4월 10일 ~ 6월 10일 자정 12시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seattledaily@gmail.com)
- **출품방법** : 최근 3년 이내 촬영작 최대 3점 (JPG 또는 PNG / 최대 20MB)
- **유의사항** : AI 및 리터칭 작품은 원본 첨부 필수 / 작품 제목, 설명, 촬영장소 및 시기 기재 필수 / 초상권 및 저작권 문제없는 미수상작만 가능

● 심사 및 시상 <총상금 \$2,400>

- **수상발표** : 2026년 6월 20일 (지역한인언론사 지면 및 온라인 발표)
- **시상내역** : 대상 \$500(1명) / 최우수상 \$300(2명) / 우수상 \$200(3명) +상패
입선 \$20 기프트카드(15명) / 시애틀 총영사상 \$200 기프트카드(1명) +상장
시애틀 교육원장상 \$100 기프트카드(청소년 2명) +상장

● 접수 및 문의 <시애틀코리아데일리>

- **이메일** : seattledaily@gmail.com · **홈페이지** : www.seattledaily.com



자세한 내용확인!

대한민국 주시애틀 총영사관, 시애틀 한국교육원, 민주평통 시애틀협의회, 미주총연 서북미연합회, 광역시애틀 한인회, 타코마 한인회, 페더럴웨이 한인회,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대한부인회(KWA), 한인의날 워싱턴주 축제재단, 아메리카 K-팝 협회(AKA), 재미한국학교 서북미연합회, 아시아태평양 문화센터(APCC), Big Hug, 워싱턴 K-양상블, 서북미문인협회, 워싱턴 코랄, KAPAC Seattle, 한인생활상담소, 시애틀푸른연대, 시애틀진보연대, 권미경부동산, 페더럴웨이 청소년오케스트라, 시애틀폴락, Gallery B612, 한국작가회의 미주지회, 에밀리원 KAAW회장, 한국문인협회 워싱턴주 지부, 페더럴웨이통합한국학교, 시애틀통합한국학교, 벨뷰통합한국학교, 워싱턴주 체육협회, BetterProperties RE King, 밝은빛루터교회, 해송식당, 남도KoreanBBQ, 에이스 마사지케어
한국일보, 교차로, 미디어한국, 시애틀N, 조이시애틀, 스포츠서울, 우먼즈, KOAM TV, 라디오한국, KBS WA

한인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eattle



시애틀한국교육원
OFFICE OF KOREAN EDUCATION

시애틀한국교육원, 제1회 한국어 말하기대회 개최

6월 6일 사우스센터 더블트리호텔...공·사립학교 한국어반 학생 31명 본선 진출
서북미 최초 한국어 학습자 대상 대회...대상 수상자에게 경기도 교육감상 수여

시애틀한국교육원이 서북미 지역 최초로 현지 공·사립학교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말하기대회를 개최한다.

시애틀한국교육원은 오는 6월 6일(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사우스센터 더블트리 호텔(DoubleTree Hotel Southcenter)에서 '제1회 시애틀한국교육원 주관 한국어 말하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글학교 학생이 아닌 미국 현지 공·사립학교 한국어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첫 행사로, 각 학교별 예선을 통과한 학생들이 본선 무대에 올라 한국어 실력을 겨루게 된다. 본선에는 총 15개 학교에서 선발된 31명의 학생들이 참가한다. 참가자는 초등학교 7명,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9명, 대학생 2명으로 구성됐다.

참가 학생들은 ▲내가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 ▲내가 좋아하는 한국 문화 ▲나에게 대한민국이란 ▲내가 만약 한국

에 간다면 하고 싶은 일 ▲친구들에게 한국을 소개한다면 등 5개 주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발표하게 된다.

이번 대회는 오전 9시 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40분까지 1부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휴식 시간을 가진 뒤 오전 10시 50분부터 11시 50분까지 2부 발표가 이어진다.

발표가 모두 끝난 후에는 시애틀 지역에서 활동 중인 '소라 어린이합창단'의 축하공연이 마련되며, 이어 시상식과 폐회식이 진행된다. 행사 종료 후에는 참가 학생과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기념 사진 촬영도 예정돼 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경기도교육청이 특별 후원에 나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경기도교육감상이 수여되며, 금상 수상자 2명에게는 시애틀총영사상, 은상 수상자 3명에게는 시애틀한국교육원장상이 각각 수여된다.

또한 참가 학생 전원에게는 학교 대표

말하기대회 참가 인증서가 수여되며, 주최 측은 현장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시애틀한국교육원 관계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재학 중인 경기도의 교육감상이 해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수여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동기를 높이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이번 대회는 서북미 지역 최초로 현지 학교 한국어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열리는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한국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주시애틀대한민국총영사관과 시애틀한국교육원,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후원하며, 한국어 교육 활성화와 차세대 한국어 학습자 육성을 위한 의미 있는 행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사 홍보 포스터.

모두를 위한 신문

MS MEDIA GROUP CORP.

미디어한국 스포츠서울USA O우먼즈

미디어한국 발행인 박재영
편집인 박재영
전화 206.779.5382 31411 6th Ave S
mediahankookweekly@gmail.com Federal Way, WA 98003

스포츠서울USA
오리건 타임스
The Oregon Times

Media Hankook is published by MS Media Group, Corp. 33110 Pacific Hwy S. #8 Federal Way, WA 98003, on every Friday. Subscription rate and the monthly delivery rate in most areas are \$15/month for minimum 4-day services per on month.

미디어한국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1년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구독료 150달러를 체크나 머니오더, 또는 Periodical Postage Paid at Federal Way and
크레딧카드로 신청하시면 매주 정기적으로 additional mailing offices.
우송하여 드립니다.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Media Hankook is published weekly for \$150 MS Media Group Corp. 31411 6th Ave S
per year by MS Media Group Corp. 31411 Federal Way, WA 98003



광역시애틀한인회
GREATER SEATTLE KOREAN ASSOCIATION

신뢰받는 메신저,
소상공인을 위한 알림이 시애틀한인회



Small Business Resiliency Network
Supported by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Commerce

워싱턴주 상무부 소상공업반등네트워크
(Small Business Resiliency Network)의 파트너

“코비드로 인해 타격받은 워싱턴주 소상공업의 회복과 번창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도움을 공평하게 지원합니다. 특별히 주류 사회에서 소외되어 온 듯한 사각지대에 계신 동포 소상공업체에게 현사업 운영에 관련된 간단한 번역, 조언과 기술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연계 기관과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전화 : 206-669-2578



오스카양 변호사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첫 상담을 통해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 좀 더 쉽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민사소송 및 계약
- 비즈니스 법 (고용이슈 포함)
- 부동산 법
- 상속/자산 관련 법



광고 보신분에 한하여
오피스 상담시 첫 상담은 특별가로 해드립니다
전화 상담시 선불 30% Discount해드립니다

Q. 부동산 또는 사업 거래, 협상, 및 계약서 형성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A. 저희는 고객들의 이런 갈등 등을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갈등이 누구의 잘못이고 소송 여부에 더 쉽게 결정 하 실 수 있도록 첫 상담을 잡으세요.

Q. 직원으로써, 아님 고용주로서 고용 분쟁 이 있으신 가요?

A. 저희가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해결토록 진심으로 노력하고, 이미 커졌으면 당신의 권익을 위해 열심히 싸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세요.

Q. 채무자에게서 돈을 못 받거나 채권자가 제대로 채무자의 권한을 존중 안해주나요?

A. 다양한 케이스들을 통해 채무자들이나 채권자들을 대변해오고 있습니다. 첫 상담을 하는 많은 분들이 그 전에 몰랐던 점들과 잘 못 아시고 계신 점들을 알게 되고, 그 잘못 아시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몇 십만불까지도 영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방문해주세요.

가정법

-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은 무분쟁 이혼
- 이의 제기된 이혼 분쟁/소송
- 가족 비즈니스 및 다른 자산 분할
- 양육권 및 양육비/배우자 생활 보조비



변호사 사무실
206) 979-7081 (한글 사무직원)
360) 218-7273 (오피스)
team3@esberrylaw.com

Factoria 13555 SE 36th St STE 100 Bellevue, WA 98006
Downtown 1400 112th Ave SE STE 100 Bellevue, WA 98004

다트머스 BA
프랑스 소재 인시아드 경영대 MBA
하버드 정치 행정대 MPP
코넬 법대 JD



엠마부동산

비즈니스 매매

좋은 조건의 비즈니스 리스팅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01

타코마 테리아끼

일매상

- ▶ 종업원으로만 진행중
- ▶ 부부가 일하면 높은 수익보장

\$2,800

매매가

\$ 350,000

02

타코마 테리아끼

일매상

- ▶ 저렴한 렌트비
- ▶ SBA용자 가능합니다

\$3,500

매매가

\$ 500,000

03

페더럴웨이 비즈니스

일매상

- ▶ 손쉬운 메뉴로 요리걱정없는 운영
- ▶ 저렴한 렌트비

\$2,500

SBA 용자 가능 / 5만불 다운으로 인수가능

매매가

\$ 320,000

04

세탁소

- ▶ East side 최고의 입지조건

월매상

4만불

매매가

30만불

05

페더럴웨이 현찰박치기

일매상

평균 1천불

매매가

3.5만불

- ▶ 주말에는 일매상 2천불 하는 식당

좋은 매물이 항상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엠 마 부동산



궁금한게 있으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고객님께 맞춤으로 안내해드립니다.

Emma Park **206-688-0780** | **Emmapark0780@gmail.com**



WA Society of Korean CPAs
워싱턴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돕는

이동은 공인회계사
Diane Lee, CPA

☎ 425-678-0521

✉ dianeleecpa@hotmail.com
www.dianeleecpa.com
18514 Highway 99 Ste E,
Lynnwood, WA 98037



SKJ & Company, P.S.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고객의 확실한 길잡이

정세계 공인회계사
Seke Jung, CPA

☎ 206-367-6782

✉ info@skjcpa.com
www.skjcpa.com
19909 Ballinger Way NE Ste 100,
Shoreline, WA 98155



SHK GROUP PLLC
CPA & BUSINESS ADVISORS

Trusted Tax & Accounting

김성훈 공인회계사
Seong Hoon Kim, CPA

☎ 425-869-3670

✉ info@shkgroup.com
www.shkgroup.com
9 Lake Bellevue Dr, Ste 216, Bellevue, WA 98005 (Bellevue Office)
34400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 (Federal Way Office)



업무는 신속, 정확하게, 세무감사는 확실하게, 공금증은 시원하게

김윤중 공인회계사
Arnie Kim, CPA

☎ 253-984-9530

✉ arnie@kkcpa.us
www.kimkimcpa.com
9602 S. Tacoma Way, Ste B
Lakewood, WA 98499 (Tacoma Office)



업무는 신속, 정확하게, 세무감사는 확실하게, 공금증은 시원하게

김홍중 공인회계사
Dennis Kim, CPA

☎ 425-640-3435

✉ dennis@kkcpa.us
www.kimkimcpa.com
23416 Hwy 99, Ste B
Edmonds, WA 98026 (Edmonds Office)



업무는 신속, 정확하게, 세무감사는 확실하게, 공금증은 시원하게

김덕중 공인회계사
James Kim, CPA

☎ 425-223-5577

✉ james@kkcpa.us
www.kimkimcpa.com
11542 NE 21st Street
Bellevue, WA 98004 (Bellevue Office)



PH CPA, PLLC
ACCOUNTING & TAX SERVICES

황바로 공인회계사
Paul Hwang, CPA

☎ 425-742-7675

FAX : 425-650-2972
✉ info@phcpaplpc.com
4629 168th St SW Ste H
Lynnwood, WA 98037



Sora Son CPA, LLC.

손소라 공인회계사
Sora Son, CPA

☎ 425-361-7942

✉ sora@soncpa.net
19105 36th Ave W Ste 209,
Lynnwood WA 98036



ALISA NA
명확한 맞춤회계

나은숙 공인회계사
Alisa Na, CPA

☎ 425-744-2742

✉ Service@alisanacpa.com
alisanacpa.com
8319 238th St SW,
Edmonds, WA 98026



투명한 관리, 확실한 신뢰로 비즈니스의 내일을 함께 그려드립니다.

김호순 공인회계사
Danielle H.S. Kim, CPA

☎ 253-839-9301

✉ dkimcpa1@hotmail.com
www.daniellekimcpa.com
28815 Pacific Highway S. Ste 8,
Federal Way, WA 98003



ASPEN
Financial & Tax Services

Your trusted CPA for personal and business finances

사브리나향 공인회계사
Sabrina Hwang, CPA


☎ 425-373-0380

✉ sabrinahwang@cpa.com
www.aspenfinancialtax.com
14205 SE 36th St., Suite 100,
Bellevue, WA 98006



저희 WSKCPA
(회장 정세계 / 총무 김호순)에서는 정기세미나와 미주총회 등 각종 활동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회계사님께서는 저희 협회(info@wskcpa.org)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SKCPA
WA Society of Korean CPAs
워싱턴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





워싱턴 한인 선교합창단 단원 모집

— Washington Korean Mission Choir —

♪ 모집대상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과 선교에 열정이 있는 크리스천 누구나

🎵 연습안내

🕒 연습 시간: 매주 주일 오후 5~7시

📍 연습 장소: 시애틀물댄동산교회

17620 60th Ave W, Lynnwood, WA 98037

지휘 | 허정덕 목사

- 서울대학교 성악과 졸업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석사 졸업 (합창지휘 전공)
-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합창지휘 박사 과정 수료
- 現 시애틀물댄동산교회 담임
- 現 등지선교회 남쪽밥상 Service Director



☎ 문의

조현숙 총무: 509-859-2844

37년 전통의 워싱턴 한인 선교합창단이 허정덕 목사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합니다! (1989년 창단)



허만 법률 그룹

3대를 이어온 변호사 가문

창립자 Karl Herrmann(1915-1997) : 전 상원의원 및 보험위원



“고객 한분 한분을 가족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교통사고 전문 허만 법률 그룹

사고로 다치셨습니까?
저희가 곁에 있습니다

창립70년이 넘게, 저희는 신뢰와 믿음, 그리고 뛰어난 실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변론해 왔습니다.

고객을 위한 것이라면 작은 일도 크게 보는 변호사
오늘도 고객만을 생각하는 변호사 찰스허만이
여러분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시애틀 · 타코마

페이지 리 (Paige K. Lee)

Cell: 206.773.8180
Direct: 206.492.7722
Fax: 206.492.7723
E-mail: paige@hlg.lawyer

교통사고

- 각종 상해사고/ 목허리부상
- 부당한 죽음/ 보행자 사고
- 뇌손상 사고/ 낙상사고
- 오토바이 사고/ 비행기 사고
- 제조물로 인한 상해



시애틀 · 타코마

줄리 황 (Julie Hwang)

Cell: 206.409.4611
Direct: 206.457.4200
Fax: 206.457.4201
E-mail: julie@hlg.lawyer

www.hlg.lawyer

시애틀 사무실

505 5th Ave. S, Suite 330 Seattle, WA 98104
T_206-625-9104
F_206-682-6710

타코마 사무실

1535 Tacoma Ave. S. Tacoma, WA 98402
T_253-627-8142
F_253-627-1835

워싱턴주 한식세계화협회, 한식 창업 컨설팅·레시피 교육 개최

한식 명인 박재근 셰프 초청해 6월 11일 오전 11시 페더럴웨이 해송서 BBQ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설명회도 함께 열려...예비 창업자 관심 집중

워싱턴주 한식세계화협회가 한식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들과 외식업 종사자들을 위한 특별한 창업 컨설팅 및 메뉴 교육 행사를 마련했다. 워싱턴주 한식세계화협회는 오는 6월 11일 오전 11시 페더럴웨이 해송식당 (32703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에서 '한식당 창업 메뉴 컨

설팅 및 레시피 교육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BBQ 치킨 사업설명회와 함께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에는 대한민국 한식 명인으로 알려진 박재근 셰프가 강사로 초청돼 한식 메뉴 개발과 운영 노하우, 창업 전략 등을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행사 관계자는 "단순한 요리 시연을 넘

어 실제 한식당 운영에 필요한 메뉴 구성과 레시피 개발, 창업 준비 과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컨설팅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한식당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과 외식업 종사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재근 명인은 현재 남도식당 공동 대표로 활동하며 다양한 한식 메뉴 개발

과 외식업 운영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로,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행사는 점심 식사와 함께 진행되며 참가자들에게는 기념품도 제공된다. 이번 교육은 워싱턴주 한식세계화협회가 주최하고 BBQ Chicken 미주 본사가 주관한다. 또한 광역 시애틀 한인회

와 Century 21 Real Estate, US Metro Bank가 후원한다. 협회 측은 "한식 세계화와 지역 한식업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며 "외식업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참가 문의: 206-229-6229(문자 가능)

메디케어 보험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메디케어 가입
플랜에 따라 혜택도 다릅니다.
꼼꼼히 살펴보고 가장 좋은
플랜으로 선택하세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상담받으세요'

플랜변경 기간입니다
성실하고 친절하 에이전트들에게서
무료로 자세한 서비스를 받으세요

단계. 1
일반 메디케어에
가입하십시오.

일반 메디케어 (연방 정부에서 제공)

파트 A	병원 입원 및 입원 진료 비용 지불에 도움	파트 B	의사 방문 및 외래 진료 비용 지불에 도움
-------------	-------------------------	-------------	-------------------------

선택사항 1 _____ 또는 _____ 선택사항 2
일반 메디케어에 다음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추가합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선택하십시오.

메디케어 보조 보험 플랜 (민간 회사에서 제공)

일반 메디케어에 수반되는 회원 지출액 일부에 대한 비용 지불에 도움을 줍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민간 회사에서 제공)

파트 C 파트 A (병원보험) 및 파트 B (의료보험)를 하나의 플랜에서 통합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D 플랜 (민간 회사에서 제공)

파트 D 처방약 비용 지불에 도움

파트 D 보통 처방약 혜택이 포함됩니다. 일반 메디케어가 제공하지 않는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계. 2
귀하에게 추가적인 혜택이 필요한지 결정하십시오. 추가 혜택을 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계. 3
저희에게
맡겨 주시면
됩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사업체보험 무엇이든 대답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연 종합보험
Federal Way
253-228-5295
Tacoma
253-335-3895
jpinsurance.us@gmail.com
JP INSURANCE

온정숙 종합보험
Cell
253-353-9730
Office
253-503-6441
jungvaughn62@comcast.net
VAUGHN Insurance Services, LLC

패티임 보험
Cell
253-632-8904
Office
253-335-3895
girlpatti1@gmail.net

이백희 메디케어 전문보험
Cell
253-228-7006
bkns.medicare@gmail.com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힘내세요! 함께 이겨내요! 😊

올 부동산 (구) 태양 since 2002 Year (RealtyAll.com)



주택/아파트/상가/모텔/호텔/주유소/그로서리/식당/세탁소/각종 사업체/땅/부동산 건물 관리
고객 여러분의 귀중한 자산을 늘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206.228.4989
도병호 대표 Broker
Brian Do
briando@realtyall.com



253-205-5553
도은영 Monica Kim
eunyoung@gmail.com



김 원현	206-370-2382	이 은영	206-377-9192	HANNA LEE	253-365-8324	KIM, JONG G	206-852-9855
이 순열	253-335-1965	이 덕기	206-229-7407	이종성	509-863-6212	KIM, MYUNG JOON	206-228-4989
제니퍼 오	206-228-0591	KIM, ARTHUR J	206-859-9988	김용규	206-335-8949	KIM, LOUIS	253-722-3067
이 내권	206-793-0822	KIM, VERONICA	206-436-4989	부진실	253-905-2772	TERRY CHOI	213-220-7220
이 영철	253-777-6714	황 인성	206-306-4336	김강식	206-949-6197	www.realtyall.com 에서 리스팅을 확인!	
정 정이	206-200-1444	엠마 박	206-688-0780	ROBERT KIM	253-576-3939		

▶ **올부동산과 함께할 에이전트(Broker)를 모집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김원현 부동산



김원현 Won Kim
206.370.2382
wonkim1974@hotmail.com

Veronica Kim / 206-235-5353
베로니카 김 / veronicavk0101@gmail.com

비즈니스 파실분/사실분 연락주세요

테리야기 / 음식점

- | | | |
|---------------------------|------------------|----------------------------------|
| 1. 테리야끼 | \$550,000 | 일매상: \$4,000 |
| 2. 테리야끼 | \$530,000 | 일매상: \$3,500 |
| 3. 테리야끼 | \$230,000 | 일매상: \$1,700 |
| 4. 테리야끼 | \$280,000 | 일매상: \$2,300 |
| 5. 테리야끼 | \$180,000 | 일매상: \$2,000 |
| 6. 테리야끼&Sushi | \$50,000 | 일매상: \$1,000
(Owner Carry 가능) |
| 7. 테리야끼
(부동산포함) | \$830,000 | 일매상: \$2,200 |
| 8. 일본식당
(부동산포함) | \$880,000 | 일매상: \$2,400 |

Grocery

- | | |
|--------------|--------------------------------|
| 1. \$105,000 | 월매상: \$55,000 |
| 2. \$280,000 | 월매상: \$65,000 |
| 3. \$300,000 | 월매상: \$80,000 |
| 4. \$590,000 | 월매상: \$95,000 |
| 5. \$600,000 | 월매상: \$110,000 |
| 6. \$100,000 | 월매상: \$45,000 (Owner Carry 가능) |

Motel

\$1,750,000 Year Income: \$450,000 (Room: 29)

상가건물

\$2,900,000 CAP: 6%



해송

Hae Song

해송

Korean BBQ

그대로의 맛, 더 좋아진 서비스



새로운 운영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USDA Prime Beef와
해송의 정통 한식은 그대로

NOW OPEN



32703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



(253) 878-5103

한국 현대무용, 시애틀 국제무용축제 무대 오른다

6월 6~14일 캐피털힐 브로드웨이 퍼포먼스 홀서...마이온무브·누아 참가
한국·부르키나파소·인도·핀란드 등 125명 이상 참가...개막 공연 무료

시애틀을 대표하는 국제 현대무용 축제인 시애틀 국제무용축제(Seattle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SIDF)는 6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시애틀 캐피털힐의 브로드웨이 퍼포먼스 홀(1625 Broadway)에서 열린다. 한국, 부르키나파소, 인도, 핀란드, 퍼시픽 노스웨스트 지역 예술가 125명 이상이 참가하며, 아프리카·아시아·북미에서 온 25개 이상의 단체가 무대에 오른다.

◆ 21년 역사의 시애틀 대표 현대무용 플랫폼

SIDF는 시애틀 현대무용단 캄바타 댄스 컴퍼니(Khambatta Dance Company)의 예술감독 사이러스 캄바타(Cyrus Khambatta)가 2006년 창설했다. 20년에 걸쳐 40개국 이상의 작품을 소개하고 누적 8만5,000명 이상의 관객과 무용을 연결해온 이 축제는 퓨젯사운드 지역에서 한 주간 이처럼 다양한 국제 현대무용을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

으로 드문 사례다.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스플릿 빌(split-bill) 형식으로, 문화적 배경과 안무 언어가 다른 여러 단체의 작품을 같은 저녁 무대에 나란히 배치해 관객이 서로 다른 움직임의 언어를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개막 무대 장식하는 한국 컬렉티브 마이온무브

6월 6일 토요일 오후 8시 개막 공연에는 한국 현대무용 컬렉티브 마이온무브(MYOWNMOVE)와 캄바타 댄스 컴퍼니가 공동 출연한다. 마이온무브는 "나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가, 아니면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대로 형성되는가"라는 질문을 신작으로 무대 위에서 던진다. 두 단체는 공연 며칠 전 함께 만든 협업 신작도 함께 선보인다. 개막 공연 입장권은 4컬처(4Culture)의 공공 무료 접근 프로그램 지원으로 전석 무료로 제공된다.

6월 7일 일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한국 현대공연예술 그룹 누아(NUA)가 <Salvation>을 무대에 올린다. 권미정·최민욱 예술감독이 이끄는 누아는 추락한 존재가 인간적 연결을 통

해 구원을 찾아가는 과정을 무용극으로 풀어낸다.

◆ 한국 배경 지역 예술가들도 주목 한국 단체뿐 아니라 한국과 연결고리를 가진 지역 예술가들도 이번 축제에 참가한다. 6월 9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스포트라이트 온 시애틀' 무대에 오르는 루실 준(Lucille Jun)은 워싱턴주 출신으로 한국의 예원아츠컴퍼니에서 약 10년간 활동하다 2017년 귀국한 예술가다. 그의 작업은 현대무용, 한국 전통 움직임, 힙합을 결합해 복수의 정체성 사이에서 살아가는 경험을 탐구한다. 6월 14일 일요일 오후 7시 30분 폐막 공연에는 한국계와 노르웨이계 배경을 지닌 시애틀 기반 무용가 이선 팍 롬(Ethan Pak Rome)이 출연하며, 브레이크댄스와 힙합, 무술을 아우르는 폭넓은 움직임 언어로 정체성과 유산의 문제를 무대에서 펼친다.

일반 티켓은 25달러이며, 페스티벌 패스는 95~150달러다. 공연 시간은 금·토요일 오후 8시, 일~목요일 오후 7시 30분이다.

(시애틀코리아데일리)

SIDF Seattle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JUNE 8-16
Festival passes + tickets on sale at SeattleIDF.org

Artists from:
Poland
India
South Korea
Chicago
New York City
Seattle

홍보 포스터.

J-1 · H2B · EB3

취업스폰서를 모십니다

★ **한국에서 미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신청자에게 기회를 주고, 현재 사업체 운영에 믿고 신뢰할 직원을 원하십니까?** 수시로 직원 부족으로 고용주가 대신 일해야 하는 고민을 **글로벌 인재 양성 리쿠르먼트 회사 Entryusa.co** 에서 해결해드립니다.

▶ **자격기준:** 현 사업체가 워싱턴주에 정식 등록되어 있고, 2년 이상 세금 보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사업체 종류:** 호텔, 식당, 그로서리, 스모크 샵, 세탁소, 유통 회사, 전기 및 전화 회사, 델리 및 제과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미용 및 네일, 스킨케어, 회계사무직, 법률사무직, 요가, 필라테스 강사 등

연락은 먼저 이메일로 해주세요. ▲Email: mynwcf23@gmail.com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을 받은 후 직접 고용주와 대화를 통해서 상의하겠습니다



워싱턴주 유일의

한국어 방송

라디오한국이
달라져요!

27주년을 맞은 라디오한국이
뉴스, 정보, 음악중심으로
편성표를 대폭 개편합니다!

KSUH 1450 AM
KWYZ 1230 AM
FM 102.1 MHz



Tel 253-815-1212

Email : info@radiohankook.com

31919 1st Ave S, suite 206 Federal Way, WA. 98003

월드컵 앞둔 미국, 비자·이민 단속 논란 확산

"세계인의 축제라지만 일부 국가 팬들은 미국 입국부터 장벽" 전문가들, 비자 제한·ICE 단속 우려...이민자 공동체 불안 고조

2026 북중미 FIFA 월드컵 개막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최국 미국의 강경한 이민정책이 국제 축제의 성공적인 운영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는 6월 12일 개막하는 2026 FIFA 월드컵은 사상 처음으로 48개국이 참가하고 미국·캐나다·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다. 로스앤젤레스(LA)를 비롯한 미국 내 16개 도시가 개최지로 선정됐으며, LA에서는 6월 12일부터 7월 10일까지 총 8경기가 열린다.

잉글우드 소피아 스타디움은 대회 기간 'LA 스타디움'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운영되며, 미국과 파라과이의 개막전(6월 12일), 미국과 튀르키예 경기(6월 25일)를 포함해 조별리그 5경기와 32강전 2경기, 8강전 1경기가 개최된다.

LA시는 경기장뿐 아니라 도시 전역에서 월드컵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리는 FIFA 공식 팬 페스티벌에서는 대형 스크린 중계와 라이브 공연, 문화 프로그램, 세계 음식 체험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LA 한인타

운 역시 한국 대표팀 경기 일정에 맞춰 대규모 거리 응원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월드컵을 앞둔 미국의 비자 정책과 이민 단속 강화가 국제 방문객과 이민자 사회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가 주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이민법·인권 전문가들은 비자 발급 지연과 입국 제한, 국경 통제 강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이 대회 운영과 지역사회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민키 워든 글로벌 이니셔티브 디렉터와 캐서린 라푸엔테 아동권리 선임 코디네이터, 전미유색인종위향상협회(NAACP)의 자말 R. 왓킨스 전략·발전 담당 수석부회장,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의 아리엘 루이스 소토 선임 정책분석가가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월드컵이 진정한 세계인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와 FIFA, 개최 도시들이 국제 방문객과 이민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키 워든 디렉터는 "이번 대회는 역사상 가장 크고 포용적인 월드컵으로 홍보되고 있지만 비자 제한과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 일부 국가 팬들은 미국에서 열리는 경기를 직접 관람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아이티, 이란 등 월드컵 본선 진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미국의 비자 제한 정책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란 대표팀은 로스앤젤레스와 시애틀 등 미국 서부 도시에서 조별리그 경기를 치를 예정이지만, 이란 팬들과 언론인, 가족들의 미국 입국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일부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만5,000달러의 비자 보증금을 요구하는 '비자 보증금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방문객들의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지만, 국제 스포츠 행사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FIFA가 월드컵 방문객을 위해 도입한 비자 신속 처리 프로그램인 'FIFA 패스(FIFA Pass)' 역시 신청자가 지난

달 말 기준 약 1만6,000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정책연구소의 아리엘 루이스 소토 분석가는 "비자가 필요한 전체 방문객 규모를 고려하면 매우 적은 숫자"라며 "상당수 팬들이 여전히 기존의 복잡한 비자 절차와 강화된 심사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민단속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월드컵 기간 ICE 단속을 일시 중단하는 이른바 'ICE 휴전(ICE Truce)'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올림픽 기간 분쟁 중단을 촉구하는 '올림픽 휴전'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이민자 가족들이 체포나 추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지난해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FIFA 클럽월드컵 결승전 당시 한 망명 신청자가 자녀들과 경기를 관람하러 갔다가 경기장 주차장에서 ICE에 체포된 뒤 추방된 사례도 있었다.

캐서린 라 푸엔테 코디네이터는 "이미

개최 도시의 이민자 공동체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가족들이 외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월드컵이 이러한 공포를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월드컵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인 만큼 경기장 내부에서 대규모 단속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거리 응원전과 팬 페스티벌 등 경기장 외부 공간에서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NAACP의 자말 왓킨스 부회장은 "당국은 대규모 단속 계획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가족 분리나 과잉 단속 사례가 반복돼 왔다"며 "방문객과 이민자들은 휴대전화 보안을 강화하고 이동 계획을 가족과 공유하는 한편, 자신의 법적 권리를 미리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월드컵이 성공적인 국제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경기 운영뿐 아니라 참가국 팬들과 이민자 공동체 모두가 안전하고 환영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광견병 박쥐' 확인...주민 3명 노출

워싱턴주 스노호미시 카운티에서 광견병(rabies)에 감염된 박쥐가 발견되면서 주민 3명이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3년 이후 스노호미시 카운티에서 처음 확인된 광견병 박쥐 사례다. 1일 스노호미시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지난주 기록됐으며, 감염이 확인된 박쥐와 접촉한 주민 3명은 예방 차원의 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들에게 광견병 면역글로블린을 투여했으며, 추가 백신 접종도 진행 중

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적절한 치료기 이뤄질 경우 광견병 발병을 사실상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현재 일반 주민에 대한 공중보건 위험은 낮다고 강조했다.

박쥐는 워싱턴주에서 광견병 바이러스를 자연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야생동물이며, 사람 감염은 주로 박쥐에 물리거나 긁히는 경우 발생한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보건국 예방 서비스 부서의 공중보건 간호사 수전

밤콕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겨울잠에서 깨어난 박쥐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문과 창문을 열어두는 가정이 많아지는 만큼 사람과 박쥐의 접촉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박쥐 시즌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스노호미시 지역에서 광견병 양성 판정을 받은 박쥐는 총 6마리에 불과할 정도로 사례 자체는 드문 편이다. 다만 광견병은 발병 시 치명률

이 매우 높아 의심 접촉이 있을 경우 즉각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당국은 주민들에게 박쥐 유입 예방과 반려동물 보호를 당부했다. 작은 틈새를 막고 창문·환기구 방충망을 설치하는 등 집 안으로 박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반려견과 반려묘의 광견병 예방접종도 최신 상태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 다락방, 헛간, 별채 등을 청소할 때는 장갑과 긴소매 옷을 착용하고, 박쥐를

맨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사람이 자던 방이나 어린이가 있던 공간, 반려동물과 접촉한 박쥐는 안전하게 포획해 검사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박쥐를 무조건 해로운 동물로 볼 필요는 없다"며 "광견병을 가진 박쥐는 극히 일부이고, 박쥐는 모기 등 해충을 잡아먹는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덧붙였다.

(조이시애틀뉴스)

Federal Way
병원 스페이스 렌트
253-941-6779
chachiropractic@gmail.com

Office space Rent for
L.Ac, DPT, LMT or other healthcare professionals
3Tx rooms, Reception area , restroom
Ask for Lease special !

린우드에 위치한 에스테틱 샵을 개인 사정으로 인해 파격적인 가격에 양도합니다.

몸만 들어오면 바로 운영 가능!

비즈니스 매매

린우드 뷰티샵 스튜디오 급매 - \$25,000 (장비 풀세트 포함, 즉시 운영 가능)

현재 구비된 최신 장비 가격에도 못 미치는 \$25,000에
모든 시설과 장비를 포함하여 넘겨드립니다!

<p>📍 위치 린우드 (Lynnwood, WA)</p>	<p>💰 희망 양도가 \$25,000 (권리금 및 장비 포함)</p>	<p>🏠 상태 즉시 운영 가능 풀세팅 완료!</p>
---	--	---

포함내역 독일제 전신 레드라이트 테라피(Red Light Therapy) 기기
한국산 최신 초음파 페이스 리프팅(Ultrasound Facial Lifting) 기기
기타 샵 운영에 필요한 모든 인테리어 및 집기 (Turn-key)

특이사항 몸만 들어오셔서 바로 운영 가능한 풀세팅 상태입니다.



소자본 창업이나 확장을 원하시는 분들께 최고의 기회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425 561 7866

서정자 라디오한국 사장, 이화여대 '빛나는 이화인상' 수상

이화여대 창립 140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 지난달 29일 열려 87세에도 매일 생방송 진행... “생이 다하는 날까지 나눔 실천”

미주 한인방송의 산증인이자 시애틀 라디오한국의 서정자 사장이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가 수여하는 최고 영예의 동문상인 '빛나는 이화인상'을 수상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는 5월 29일 서울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창립 140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에서 서정자 사장에게 '동창회 창립 118주년 기념 제11회 빛나는 이화인상'을 수여했다. 1963년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서 사장은 1965년 6월 15일 미주 최초의 한인 라디오 방송국을 개국하며 미주 한인 언론사의 새 역사를 열었다. 이후 시애틀로 활동 무대를 옮겨 2개의 AM 채널을 인수하고 '라디오한국'이라는 이름으로 24시간 한국어 방송을 운영해 왔다. 특히 지난 60여 년 동안 방송을 통해 한인사회와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이민자들의 정보 창구이자 소통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 온 점이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평가됐다. 현재 87세의 고령인 서 사장은 지금도 매일 2시간씩 직접 생방송을 진행하며 현역 방송인으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방송을 향한 열정과 지역사회

봉사 정신은 후배 동문들과 한인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 이명경 이화여대 총동창회장은 “서정자 대표는 오랜 세월 방송을 통해 이웃과 사회를 연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이화의 정신을 훌륭히 실천해 온 공로를 높이 평가해 이 상을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 수상자로 단상에 오른 서 사장은 “어제 87세의 나이에 시애틀에서 한국에 도착했다”고 인사말을 전한 참석자들의 큰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수상 소감에서 서 사장은 “1967년부터 해외에서 방송을 이어오며 외롭고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사람과 사람이 이어주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늘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제가 잘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이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받은 사랑을 사



서정자 사장이 '빛나는 이화인상'을 수상하고 있다.

회에 나누며 생이 다하는 날까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겠다”고 밝혀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다. 한편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빛나는 이화인상'은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동문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올해는 서정자 사장을 비롯해 오혜숙 산부인과 전문의, 이소현 ㈜오티스타 대표이사, 서동순 샘표식품 마케팅본부장, 이지선 미국 시카고예술대학 총장 등 총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행사는 이화여대 창립 140주년을 기념하는 합창 페스티벌과 축하 공연이 함께 진행됐으며, 세계 각지에서 모인 동문들이 세대를 초월한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마무리됐다.

미디어한국 시애틀코리아데일리 KBS Washington 스포츠서울USA WOMAN'S haninsosik.com

2027년 서북미 통합업소록과 함께하세요!

통합한인업소록 리스팅 · 광고접수

업소록 광고를 신청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2 가지 혜택

1 전자신문에 무료 광고 게재

MS Media Group에서 워싱턴주 한인들에게 매주 전달하고 있는 전자신문에 무료로 광고를 게재해 드립니다.

2 웹사이트 광고비 50% 할인 혜택

MS Media Group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온라인신문에 광고하시는 분들께 광고비 5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광고문의 206.779.5382 / E-mail: mediahankookweekly@gmail.com

시애틀 판매세 0.15%→0.30%로 인상 추진...버스 노선 대폭 늘린다

- ▶ 현행 0.15% 판매세를 0.30%로 두 배 인상...10년 한시 적용
- ▶ 연평균 1억3800만 달러 조성...버스 운행 연 28만 회 · 저소득층 오르카 카드 지원
- ▶ 시의회 승인 후 11월 주민투표 예정...2020년엔 80.3% 찬성으로 통과

케이티 윌슨 시애틀 시장이 6월 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서비스 확대를 위한 판매세 인상안을 발표했다. '시애틀 대중교통 조례(Seattle Transit Measure)' 갱신안으로, 현행 0.15%인 판매세율을 0.30%로 두 배 올리는 내용이다. 현행 조례는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다.

◆ 연간 1억3800만 달러 조성...버스 · 경전철 · 오르카 카드 지원 시 교통국(SDOT) 앤절라 브레이디 국장 대행에 따르면 새 조례가 통과될 경우 연평균 1억3800만 달러가 조성된다. 이 중 9610만 달러는 주 7일 버스 운행 확대에 쓰이며, 킹카운티 메트로 기본 노선 외에 연간 28만 회의 버스 운행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이는 현행 조례 대비 약

10만 회 늘어난 수치다. 오로라 에비뉴 E라인 증편과 화이트센터 · 조지타운 · 비콘힐을 잇는 60분 노선의 15분 배차 간격 확보 등 저소득층 밀집 지역 노선이 우선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오르카 카드 2만2000장도 무료로 지급된다. 아울러 연간 610만 달러는 레이니어밸리 그레이엄 스트리트역 등 사운드 트랜짓 3(ST3) 경전철 확장 사업 지원에, 2340만 달러는 퍼스트힐과 사우스레이크유니언 두 개 노면전차 운영 유지에 각각 배정된다. 버스 정류장 및 도로 개선에도 연간 350만 달러가 투입된다. ◆ "교통비 절감이 곧 생활비 절감"...시장의 논리 윌슨 시장은 이번 인상안을 주저 비용 절감 전략의 일환으로 제시했다. "대중교통이 자주,

민을 수 있게, 저렴하게 운행되면 사람들의 이동만 돕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준다"며 "자동차 유지비, 보험료, 수리비, 주차비 등을 합산하면 가계 지출이 상당한데, 대중교통이 개선되면 더 많은 가정이 차 없이 또는 차를 줄여서 살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이라고 강조했다. 시 추산에 따르면 연소득 12만4000달러인 2인 가구 기준으로 이번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약 58달러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현행 조례 기준 연간 부담액인 29달러의 두 배 수준이다.

◆ 찬반 엇갈리는 가운데 시의회 승인 · 주민투표가 관건 발표된 조례안은 시의회로 넘어갔으며, 시의회가 투표에 부칠지를 결정한다. 윌슨 시장은 올 11월



킹카운티 메트로 버스

주민투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 현행 조례는 주민투표에서 80.3%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워싱턴 정책 센터(Washington Policy Center)의 교통 분석가 찰스 프레스트루드는 "저소득층 통근자의 81%가 자가용이나 카풀을 이용한다"며 판매세 인상이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역진적 부담을 지운다고 지적했다. 또 ST3

지원에 대해서는 "수십 년 뒤에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에 돈을 쏟아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킹카운티 메트로의 버스 요금 수입은 전체 운영비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코로나19 이후 하루 평균 승객 수는 27만4000명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9년 최고치인 41만 명에는 아직 크게 못 미친다. <시애틀코리아데일리>

"그만! 양손 든 채 막아섰지만"...연방상원의원 앤디 김, ICE에 최루액 직격

- ▶ 25일 메모리얼 데이 뉴어크 ICE 수용소 앞 충돌... 앤디 김 의원 · 주(州) 보좌실장 동시 피해
- ▶ 수용자 약 300명 단식 농성 닷새째... 음식 · 의료 처치 · 냉방 문제 항의
- ▶ 앤디 김 "행정부의 실패, 폐쇄해야"... 국토안보부 "정치적 쇼"

한국계 첫 미국 연방 상원의원인 앤디 김(민주 · 뉴저지 · 43) 상원의원이 25일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의 이민세관 단속국(ICE) 수용소 앞 시위 현장에서 ICE 요원들이 살포한 최루액과 페퍼볼(고추 성분 발사체)에 직접 노출되는 봉변을 당했다.

김 의원은 시위대와 무장 요원 사이에 끼어든 채 충돌을 중재하려다 호흡 곤란 증세까지 보였으며, 현장에서 자원 봉사 응급요원으로부터 눈을 씻어내는 처치를 받았다. 이날 충돌은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뉴어크의 ICE 수용시설 '딜레이니 홀'(Delaney Hall) 정문 앞에서 일어났다.

이 시설에는 현재 약 300명의 이민자가 구금돼 있으며, 이들 중 다수가 22일(금)부터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여왔다. ◆ 양손 들어 시위대-ICE 사이 막아선 앤디 김, 페퍼볼 · 최루액 직격 김 의원은 NJ.com과 노스저지닷컴(NorthJersey.com) 등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경위를 자세히 밝혔다. 그는 시위대와 ICE 요원 사이에서 충돌을 막기 위해 양손을 들어 '멈춰 달라'는 자세를 취했고, 그 직후 ICE가 시위대 쪽으로 페퍼볼 발사기와 최루액 분사기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ICE 측이 시위대 사이로 차량을 빼내겠다고 통보했고, 나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중간에서 합의를 만들어 보려 했다"며 "그러나 ICE는 그대로 차량을 밀고 들

어왔고, 그 순간 시대 일부가 곧바로 끌어내려져 제압당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 한번 돌 사이에 끼어들었을 때 ICE 요원들이 우리에게 페퍼볼을 쏘고 최루액을 뿌리기 시작했다"며 "할 수 있는 일은 가운데 서서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것뿐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손에 정체가 분명치 않은 물체를 맞아 통증을 호소했으며, 흡입한 화학 자극제로 인해 호흡 곤란 증세도 보였다. 현장 영상에는 그가 캠핑용 의자에 주저앉은 채 의료용 장갑을 낀 자원봉사자들이 생수로 그의 눈을 씻고 양복 외투에 남은 잔여 약품을 닦아내는 모습이 담겼다.

김 의원의 뉴저지 주(州) 보좌실장 폴 스투어트 아론슨도 같은 자리에서 최루액에 노출됐다. 김 의원은 처치를 받은 뒤에도 "목이 따갑고 눈이 화끈거리지만, 이번 일의 핵심은 내가 아니다"라며 시설 폐쇄와 처우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사회관계망 X에 올린 성명에서 "내가 오늘 목격하고 직접 겪은 일은 부끄러운 일이었다. 딜레이니 홀은 실패한 시설이고, 이 행정부의 실패이며, 이를 바로잡는 유일한 길은 시설을 폐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딜레이니 홀 수용자 300명 단식 농성... 음식 · 냉방 · 의료 처치 항의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단식 농성은 지난 22일 시작했다. 약 300명의 수용자들은 △적법 절차 결여 △부패한 음식 △폭염 속 냉방 시설 부재 △임신

부 · 환자에 대한 의료 처치 미흡 등을 호소하며 단식과 함께 시설 노동(작업) 거부로 들어갔다. 가족과 옹호 단체 회원들도 같은 날부터 시설 정문 앞에 모여 함께 항의를 시작했다. 25일 충돌 당시 시위대 가운데 약 125명이 시설 입출구를 둘러싸는 '인간 사슬'을 만들어 차량 출입을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시위대는 ICE 요원들에게 물건을 던지기도 했고, 요원들은 방패와 진압 장비를 갖춘 채 시위대를 밀어내며 군용 차량을 빼내려 시도했다.

미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도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시설에 도착해 시설 내부 시찰을 시도했으나 진입을 거부당했다. 셰릴 주지사는 성명에서 "딜레이니 홀 진입 요청이 오늘 아침 공식적으로 거부됐다. 그들이 국민의 시선으로부터 무엇을 가리고 싶어 하는지 더 큰 의문이 생긴다"고 밝혔다.

셰릴 주지사는 가족들과 시설 정문 앞에서 대화를 나누며 머물렀고 같은 자리에는 뉴저지 출신의 롬 메넨데스, 라모니카 매카이버, 넬리 푸 등 민주당 하원의원도 동행했다. 김 의원은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DHS)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의회 감독 권한에 따른 시설 진입을 요청했고, 결국 시설 안으로 들어가 18세 소녀 수용자, 임신 중인 여성 수용자 등을 만나 직접 처우 실태를 들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부 상황은 비인간적"이라고 표현했다. ◆ 앤



디 김 "폐쇄해야" vs 국토안보부 "정치적 쇼"... 양측 공방 국토안보부는 사건 직후 이날 충돌에 대해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 부처 측은 "페퍼볼 발사체에 직접 맞은 사람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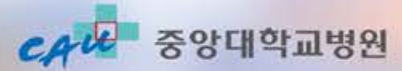
폭도들이 ICE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는 범 집행 요원들을 가로막아 다수의 적법한 해산 명령을 발령했고, 이후 자신과 일반인, 연방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 수준의 물리력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로런 비스 국토안보부 차관보 직무대행은 "이번 사건은 모금용 클릭을 노린 뉴저지 '성역 도시' 정치인들의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딜레이니 홀에는 단식 농성도 없고, 부적절한 처우나 학대도 없다"고 반박했다. 부처는 김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감독 권한 수행을 위해 시설 진입을 허용했다"고 밝혔으나 셰릴 주지사와 다른 의원들의 진입 요청은 거부했다고 인정했다. 시설 운영사인 민간 교정기업 지오 그룹(GEO Group)도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뉴저지 공화당은

김 의원과 셰릴 주지사가 메모리얼 데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하며 "전통 장병을 기리는 날에 ICE 수용소 앞에서 값싼 사진 촬영 행사를 벌였다"는 성명을 냈다.

딜레이니 홀은 지난해 5월 문을 연 뒤로 잇따라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개소 직후 라스 바라카 뉴어크 시장이 시설 앞에서 체포된 데 이어, 지난해 6월에는 수용자 4명이 처우에 반발한 소동 도중 시설을 탈출했다. 의회 감독 방문 중 연방 요원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라모니카 매카이버 하원의원이 기소돼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곳도 같은 시설이다.

김 의원은 2024년 11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는 처음 미국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금 의회에 상정된 ICE 예산 수백억 달러 확대 법안에 반대한다"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공화당이 만들어낸 무법 상태가 뉴저지 거리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시애틀코리아데일리>



휴람 - 중앙대학교병원 해외동포 특별가 검진프로그램

2025.1.1. ~

휴람 고객만을 위한 맞춤형 검진프로그램

휴람 고객을 위한 체류기간 내에 빠른 진료 연계 제공



기본검진



남성검진



여성검진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해외동포특별가 프로그램 혜택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람 기본 항목

프로그램	검사항목
종합검진 기본항목	신체계측, 체성분분석, 안과(안압, 안저, 시력), 청력, 폐기능, 흉부촬영(전면, 측면), 심전도, 혈액형, 일반혈액, 간기능,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신장기능, 전해질, 당뇨(공복식혈당, 당화혈색소), 매독, 에이즈, 종양표지자(간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남], 난소암[여], 유방암[여], 고지혈증, 요산, 갑상선기능, 소변, 식생활평가, 류마티스인자, 복부초음파, 위내시경, 액상자궁경부암검사[여], 유방촬영[여], 여성호르몬[여]

휴람 남성 검진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사항목	검진가
휴람 남성 종합검진	[휴람기본항목] + 대장내시경(수면), 전립선초음파, 저선량 폐MDCT	1,071,000
휴람 정밀 종합검진	[휴람기본항목] + 대장내시경(수면), 전립선초음파, 저선량 폐MDCT + 뇌MRA, 심장초음파	1,836,000
휴람 VIP 종합검진	[휴람기본항목] + 대장내시경(수면), 전립선초음파, 저선량 폐MDCT + 심장초음파 + 복부골반MDCT, 경동맥초음파, 갑상선초음파, 비타민D, 골밀도 + 뇌MRI&뇌MRA, 동맥경화도, 남성호르몬 *픽업서비스(서울시내)	2,979,000
휴람 VVIP 검진 (2일간 진행)	[휴람기본항목] + 대장내시경(수면), 전립선초음파, 저선량 폐MDCT + 심장초음파 + 뇌MRI&뇌MRA, 복부골반MDCT, 경동맥초음파, 갑상선초음파, 관상동맥 CT + 비타민D, 골밀도, 동맥경화도, 남성호르몬 + 뇌, 심장 정밀혈액검사, PET-CT(암정밀검사) *픽업서비스(서울시내)	4,622,550

휴람 여성 검진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사항목	검진가
휴람 여성 종합검진	[휴람기본항목] + 대장내시경(수면),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1,098,000
휴람 정밀 종합검진	[휴람기본항목] + 대장내시경(수면),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 뇌 MRA, 심장초음파	1,863,000
휴람 VIP 종합검진	[휴람기본항목] + 대장내시경(수면),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 심장초음파, 골밀도, 저선량 폐MDCT + 뇌MRI&뇌MRA, 복부골반MDCT, 경동맥초음파, 갑상선초음파 + 동맥경화도, 비타민D, 인유두종바이러스 DNA *픽업서비스(서울시내)	3,204,000
휴람 VVIP 검진 (2일간 진행)	[휴람기본항목] + 대장내시경(수면),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관상동맥 CT + 심장초음파, 골밀도, 저선량 폐MDCT + 뇌MRI&뇌MRA, 복부골반MDCT, 경동맥초음파, 갑상선초음파 + 동맥경화도, 비타민D, 인유두종바이러스 DNA + 뇌, 심장 정밀혈액검사, PET-CT(암정밀검사) *픽업서비스(서울시내)	4,847,550

휴람 특화 검진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	검사항목	검진가
휴람 뇌건강 검진	혈액검사(당뇨, 고지혈증, 뇌정밀혈액) 경동맥초음파 + 뇌MRI & 뇌MRA + 알츠온 혈액검사 + 도파민 PET-CT	2,562,000
휴람 치매 검진	알츠온 혈액검사 + 뇌MRI & 뇌MRA & 해마 + 아밀로이드 PET-CT	2,230,000
휴람 심혈관 검진	혈액검사(당뇨, 고지혈증, 심장 정밀혈액) + 심전도 + 동맥경화도 + 경동맥초음파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CT	903,000
휴람 유전자검사	뇌질환유전자5종, 심혈관 5종 유전자검사 ※ 치매/심혈관검진 첫 시행 시 필요	각 132,000



미주워싱턴 본부장
에스더 나

Tel : 206-779-5382 이메일 : skgid7700@gmail.com



* 숙박필요시 병원인근숙소 제공 - 제휴 혜택 특별가 제공

교육칼럼



민명기

eWay 학원 원장

미국 대학 입학 사정은 보다 투명할 필요가 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 요구하기는 쉽지만 그 요구를 실천에 옮기는 것은 아주 힘들거나 불가능한 일들이 꽤 많다. “너는 왜 항상 학교 갔다 오면 숙제를 먼저 하고 게임을 하든가 하지 게임을 하다가 잠들기 전에 마지못해 ChatGPT로 대중 숙제를 하니?”, “아니 당신은 내가 저녁 준비할 때 인터넷만 보지 말고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하네!”, “성도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만 크리스천이 되지 말고, 주중에도 일상 속에서 크리스천의 삶을 살면 좋지 않을까요?”

대학의 입학 제도에 대해 그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 역시 위의 요구들과 그 궤를 같이하는 요구이다. 아시아시피, 미국 대학들이 합격자를 사정할 때 특정 시험의 점수나 고교 성적 이외의 숫자로 환산되기 쉽지 않은 다른 요건들-특별활동, 봉사, 수상 경력, 특기 여부, 동문 여부 등을 사정에서 사용해 객관적인 예상을 벗어나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국에서 미국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

으신 어느 부모님이 잔뜩 불멘소리로 물으신다. “아니 한국에서는 수능 점수가 높으면 대충 어느 대학의 어느 학과에 합격이 가능하다는 가늠이라도 되는데,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은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제도를 제공할 줄 알았는데 실망이네요.”

이러한 불만이나 우려는 다른 나라나 문화가 가진 분들만의 것이 아니다. 지난 5월 중순에 권위 있는 교육 잡지인 대학 연감의 잘 알려진 칼럼니스트인 에릭 후버는 그의 “왜 투명성이 대학 입시에 흰 고래인가: 대학들은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설명을 해 줄 수는 있다”라는 기사에서 같은 점을 지적한다. 물론 여기에서 흰 고래는 허먼 멜빌의 소설 Moby-Dick(한국에서는 하얀 고래를 의미하는 백경으로 번역)의 주인공이며, 포획이 불가능한 거대한 흰 고래를 나타낸다.

위의 글에서 지적한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얼마 전 입학 경쟁이 치열한 모든 미국 대학들은 “ACTS, Admissions and Consumer Transparency Supplement”라고 부르는 새로운 설문문에 대해 정부에 제출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즉, 입학 사정에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들이 입시에 관한 자료들을 대폭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대학 밖에서만

주장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4월 예일대학교의 교수 위원회 역시 입시에 대한 대중들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추천했다. 이에 따르면, 입시에서 주관적인 판단이 없을 수는 없지만 과연 그 결정이 투명하게 행사되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몇 년 전 하버드대학교의 소수계 학생들을 우대하는 입시 정책의 부당함을 제소해 미국 대학 입시에서의 소수계 우대 정책을 폐기시킨 ‘공정한 입시를 위한 학생들’이라는 단체의 대표인 에드워드 블럼과 인디애나주 공화당 상원의원인 토드 영은 미국 대학 입시에서 동문 우대나 기부금 입학자 우대를 금지하거나, 적어도 그런 학생들을 얼마나 합격시키는 지 그 숫자를 발표해 적어도 그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요구하는 주장을 제기했다.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는 이러한 주장들은 일관성이 있고 일리가 있는 주장들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과정을 살펴볼 때 요구하기는 쉬우나 실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임도 분명하다. 특히 대학들의 입학을 담당하는 입학 담당자들이나 교육계 관계자들이 지적하는 입학 사정의 난점들에 따르면 그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예를 들어 조지아텍의 입학처장인 릭 클라크의 지적처럼, 대학의 입학처는 학교에 예산을

만들어 내고 학교가 필요로 하는 많은 필요들을 충족시키려고 전력을 다하는 상당히 복잡한 비즈니스를 실천하는 집단이다. 즉 입학처는 서비스 단체가 아니고 대학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진 단체이다. 태생부터 친절하거나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투명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으니 객관적인 자료의 공개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오리건주립대학교의 부총장으로 오랫동안 일한 보켄스타드의 설명처럼, 대학들이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많은 입학 관련 자료들을 공개한다고 해서, 위에 언급한 이유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그 자료들이 왜 어떤 대학이 철수 대신 영희를 합격시켰는지에 대한 어떤 해안이나 의미 있는 어드바이스를 주지는 않는다고 한다.

아무리 대학들이 정부의 요구대로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도, 그 설문에는 운동선수, 동문 자녀나 기부금 입학자 등의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결격 사유가 있는 자료가 된다. 설사 이러한 정보들이 포함된다 해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친구나 그 대학에 다니는 지인 등의 사항들에 더 비중을 많이 두는 경향이 있으니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아내의 저녁 준비를 돕는 것과는 조금 더 복잡한 일로 보이지 않는가. (www.ewaybellevue.com)



큰 뜻과 보람으로 일하기 원하십니까? 대한부인회 간병인(Caregiver) 모집!

경쟁력있는 임금 \$22.63-\$26.97

**좋은 베니핏 - 의료보험, 유급휴가
자유로운 근무 시간 - Full Time, Part Time
근무중 자동차 운행비 지급
경력, 자격증 소지자 우대**

**KWA 본사와 지부에서 신청서 접수와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253)535-4202 / www.kwacares.org/careers**



〈타코마〉 실비아 리 (253)319-8646 sli@kwacares.org, 김혜연 (253)319-8652 hykim@kwacares.org
 〈린우드〉 리나 정 (425)790-3565, (253)302-0202 lchong@kwacares.org
 〈헤더럴웨이〉 이경주 (253)656-3458 klee@kwacares.org, 송영정 (253)656-3445 ysong@kwacares.org

이성수(수필가·서북미문협회원)

엄마 손은 약손(藥手)이다

인간은 동물 중 유일하게 손을 가지고 있다. 손에는 온몸의 신경이 모여 있다. 따라서 손은 가장 예민하고 소중한 곳이다. 수지(手脂)침은 이런 원리를 이용하여 우리 온몸을 치료한다. 손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을 알 수 있고 인품이 보이고 행운도 보인다. 손이 큰 사람은 몸도 크고, 손이 작은 사람은 몸도 작고, 손이 통통하면 몸도 통통하고, 손이 말랐으면 몸도 말라 있다. 손이 뜨거우면 몸도 뜨겁고 손이 차가우면 몸도 차갑다. 손이 붓는 사람은 온몸이 붓고, 손을 떠는 것은 신경 계통에 교란이 온 것이다. 손바닥에 있는 손금은 운명의 지도이다. 약수는 우호(友好)의 표시이고, 박수는 칭찬과 격려이다. 손뼉을 치는 것은 온몸으로 환호하는 것이고, 두 손을 비비면 최상급의 아부(阿附)이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 정신없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사죄하는 것이다. 손사래는 온몸으로 거부하는 것이고, 손바닥을 때리는 것은 온몸을 때리는 것이다. 남녀가 손을 잡으면 이미 마음을 다 준 거고, 손을 주무르면 온몸을 주무르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비족들은 손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손금을 봐준다고 하면서 여자의 손을 자꾸 주무른다. 새끼손가락을 걸면 강한 약속을 한 것이고, 반지는 몸을 묶어서 하는 강한 맹세이고, 꽃

반지는 첫사랑이며 쉽게 풀어진다. 손가락을 절단하는 것은 목숨을 건 맹세이며 결의(決意)이다. 손짓 발짓은 온몸으로 의사소통하는 언어이며,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은 온몸으로 염원하는 것이다. 손짓이 큰 사람은 외향적이고 손을 등 뒤로 감추는 사람은 비밀이 있는 사람이다. 뒷집을 지고 있는 사람은 관망(觀望)하는 것이다. 손톱 장식은 많이 하는 사람은 화사한 성격이며, 손톱이 지저분한 사람은 온몸도 지저분하다. 손바닥을 간질여도 웃지 않는 사람은 냉혹(冷酷)한 사람이며, 남의 손을 오래 잡고 놓아주지 않는 사람은 정이 많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로운 사람이다. 손가락을 빠는 사람은 어려서 젖을 충분히 못 먹은 사람이며 늘 입이 허전해한다. 따라서 커서도 뒤튼지 빠는 걸 좋아한다. 커피도 빨아 먹고, 아이스크림이 묻은 손가락도 쪽쪽 빨다. 잘 때 아내의 젖을 빨다. 빨지 못하게 하면 나가서 빨고 다닐 가능성이 있다. 손모가지를 비튼다는 것은 온몸의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것이며, 손목을 묶거나 수갑을 채우면 속수무책(束手無策)이 된다. 빙판이나 계단에서 바지에 두 손을 넣고 다니면 낙상해서 온몸을 다치기 쉽다. 오른손은 좌뇌(左腦)와 통하고, 왼손은 우뇌(右腦)와 통한다. 따라서 데이트할 때는 왼손

을 잡고 분위기를 잡아야 한다. 화투, 바둑, 장기, 마작 등으로 돈을 따거나 잃을 주역(主役)은 손이다. 수제품(手製品)은 온몸으로 만든 정성(精誠)이 깃든 음식이다. 어머니가 만들어준 칼국수와 수제비 맛을 잊지 못하며, 자장면도 수타(手打)로 한 것이 더 맛있다. 배가 아플 때 엄마가 손으로 문질러 주면 엄마의 손은 약손이라 씻은 듯이 낫는다. 온몸의 기(氣)를 모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두 손을 내밀면 온몸으로 구원하는 것이고 손에 손잡고(hand in hand)는 강한 팀워크를 만들어 경기에 승리를 가져왔다. 88올림픽 주제곡은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 서로서로 사랑하는 한마음 되자'이다. 거수(擧手)경례는 온몸으로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부패한 손은 검은 손을 상징하며 "손들어!"는 저항하지 말라는 의미이고, 전투 중 두 손을 들면 항복하는 것이다. 명예의 전당에 스타들이 손바닥 자국을 남기는 것은 일생을 남기는 것이고 공수래(空手來) 공수거(空手去)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을 말하는 것이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비밀을 지키라는 것이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손바닥에 못 박힌 것은 가해자는 가장 흑독한 고통을 주려는 것이며, 예수는 스스로 가

장 큰 고통을 감수한다는 의미다. 절할 때에는 두 손부터 공손히 모아야 하고, 때 묻은 것은 늘 함께해서 정이 든 것을 의미하며 손바닥의 굳은살은 인생의 나이테이다. 미국 구호 물자에는 한국인과 미국인의 손이 악수한 그림이 있는데 이는 미국과의 우호를 증진한 것이다. 손가락의 지문은 사람마다 다르다.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라도 지문이 다르다. 본인 확인을 위해 지문이 필요한데 세계 인구의 지문을 다 다르게 창조한 조물주의 섭리가 오묘하다. 손으로 젓가락을 잘 집는 민족은 한국, 중국, 일본, 월남, 태국이다. 손의 운동이 활발하여 뇌가 발달하고 있어 세계 민족 IQ가 한국이 1위이다. 남자가 여자 손바닥을 간질이면 성희롱이다. 법원은 여자의 온몸을 건드린 것이나 마찬가지로 판단한 것이다. 그대의 찬 손은 이미 상황이 끝났다는 것이고 그래서 연애할 때 상대방의 손이 차가우면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손부터 따뜻하게 해주어야 한다. 세수(洗手), 즉 손(手)만 잘 씻어도 위생 상태는 두 배로 좋아진다. 두 손 모아 기도만 잘해도 응답을 받는다. 당신의 손(手)은 깨끗한 손, 더러운 손, 건강한 손, 병든 손, 생산적인 손, 파괴적인 손, 베푸는 손, 빼앗는 손, 아름다운 손(手) 중 어느 손(手)에 속하고 있는가?

시애틀 랜드마크 빌딩 '반값 매각' 충격


시애틀 다운타운을 대표하는 초고층 오피스 빌딩 중 하나인 US뱅크센터가 매입가보다 절반 이하 가격에 매각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애틀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가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다. 1일 시애틀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회사 블랙스톤(Blackstone)은 시애틀 다운타운 44층짜리 US뱅크센터를 약 2억8,000만 달러에 매각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블랙스톤이 2019년 약 6억1,200만

달러에 건물을 사들인 가격보다 약 54% 낮은 수준이다. 새 인수자는 약 40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운용하는 오피스 전문 투자회사 스피어 스트리트 캐피탈로 알려졌다. 다만 거래는 아직 최종 완료되지 않았으며 금융 조달 조건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이번 거래는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확산과 높은 금리, 기업들의 오피스 축소가 맞물리며 시애틀 도심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얼마나

크게 하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부동산 분석업체에 따르면 미국 주요 도심 업무지구 오피스 가치는 최근 5년간 평균 44% 하락했다. 특히 시애틀은 미국 주요 도시 가운데 타격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부동산 서비스업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시애틀 다운타운 오피스의 약 3분의 1이 여전히 공실 상태다. 다만 벨뷰를 중심으로 한 이스트사이드 지역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과 인공지능(AI)

기업들의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블랙스톤도 최근 투자 방향을 시애틀 동부로 옮기고 있다. 지난해 블랙스톤은 벨뷰 소재 메타 임차 오피스 빌딩 지분 40%를 인수하며 약 5억4,500만 달러 가치로 평가 받는 거래에 참여했다. US뱅크센터는 1980년대 후반 지어진 시애틀 랜드마크 빌딩으로, 한때 고급 매장과 레스토랑, 영화관, 대형 장난감 매장 FAO 슈워츠가 입점했던 곳이다.

최근에는 팬데믹 이후 도심 유동인구 회복을 위해 내부 아트리움을 '시더홀'이라는 푸드·커뮤니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도 했다. 블랙스톤은 현재 시애틀 다운타운의 도큐사인(DocuSign) 빌딩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해당 건물의 대출 구조를 재조정할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거래가 향후 시애틀 오피스 빌딩 가치 재평가와 추가 매각 움직임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이시애틀뉴스)



GLOBAL REAL ESTATE EXPRESS

이성규 부동산의 좋은 이웃
Sang K. Yi Broker
206.612.8962 / Real4949@gmail.com

Hotel·Gas·Business Commercial Properties

HOTEL, MOTEL

- ▶ Lakewood Guestrooms: 54+ 1 Room
- ▶ Asking \$5,000,000
- ▶ Guestrooms: 120 Asking \$28,000,000

Commercial 상가

- ▶ Tacoma 9 Unites Asking \$3,200,000 5.75 Cap.
- ▶ Shelton 4Unites Asking \$1,430,000 5.7 Cap.
- ▶ South 29Unites Asking \$11,000,000 6 Cap.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레지나 채
킹카운티 멘탈 헬스 카운슬러

와우!
누군가 했더니 잘생긴 잔이다.
잔을 보면서 너무나 반가워서 소리를 지를 뻔했다.
잔은 그 특유의 밝은 미소를 띠면서 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하이 레지나! 하와유?”
나는 반갑기도 했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이 지내다가 몇 년 만에 다시 내 사무실을 찾아온 잔이 반갑기도 했지만 너무 궁금했다.
“그래, 어떻게 된 일이지?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낸 거지? 그래, 건강은?”
사실은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것이 중독에 관한 것이었다.
잔은 “레지나,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
좋아졌다는 얘기는 아직도 중독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얘기네?
나의 말에 잔이 웃으며 답을 한다.
“레지나, 나도 지금 노력 중이야.
그런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자제가 되는 중이야. 물론 재활치료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도 하고 의식적으로 되뇌이면서 나를 훈련 중이야.
술을 안 마셔도 행복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 내 몸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니 지금

지금 이 기회인 거야(Now is the New Chance) 1

은 전보다 많이 술을 찾는 횟수가 적어졌지.”
“아하, 그렇구나!
그런데 어떻게 우리 사무실에서 사라진 거지?”
“음, 사실은 조지아주에 형과 동생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과 합류하려고 갔는데 형도 동생도 중독자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형은 지금 형을 받고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는데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고 더욱 술을 마시게 되고 약을 하게 되니까 다시 이곳 시애틀로 온 거야!”
잔은 29살 금발에 밝은 미소를 가진 키가 크고 잘생긴 백인 청년이었다.
9년 전 잔이 우리 사무실 로비에서 등에 백팩을 메고 슬리퍼는 청년들이 유행하는 슬리퍼를 신고 청바지에 티셔츠를 걸치고 앉아 있었을 때에는 우리 직원들은 누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아마 새로운 직원이 인터뷰하러 온 것 같다고.”
잔은 39명의 카운슬러 중 내게로 배정이 되었다. 나는 같은 사무실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책임을 맡은 리드 카운슬러로 일반 카운슬러보다는 좀 더 어려운 케이스들을 맡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카운슬러들을 훈련시키는 일들을 하고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 내게로 오는 케이스들은 감옥에서 오랜 시간 살다가 출소한 사람 또는 살인 죄로 복역하다가 나온 사람, 성폭력자로 살다가 나온 사람 등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마무시한 범죄 경력들의 사람들과의 상담과 이들의 자립을 도와주어야 하는 일들을 하는 일이었다. 정신적인 상담과 더불어 이들이 필요한 베네핏

을 찾아주고 필요하면 약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어세스먼트를 기록하여 이들을 정신과 의사들에게 보내는 일 등이었다. 때로는 이들을 받아주는 일터를 찾아내어 이들의 신변을 우리 사무실에서 보장하면서 직장을 얻어줄 수 있는 일도 우리의 본분인 상담을 하고 나서 시간이 날 경우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었다.
잔이 처음에 내 사무실에 온 날 그렇게 잘생긴 눈이 파랗고 맑은 금발의 20대 청년에게 그렇게 힘든 삶의 여정을 걸어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잔의 표정은 밝았었다.
잔의 엄마는 알코올과 약물중독자로 잔 이외의 5명의 자녀들을 낳았는데 모두가 아버지가 달랐다.
술에 취하거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하고나 잠을 자고 나서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함께 살다가 아이를 낳으면 또 거리로 나가 술에 취하거나 약에 취해진 상태의 반복적인 삶을 살아온 여자의 삶이 잔의 엄마였다.
잔도 역시 이런 과정에서 태어나 아버지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고 엄마의 중독증과 방황으로 포스터 흠을 전전하면서 자라왔었는데 10대가 된 잔은 포스터 흠에서의 생활이 지긋지긋하게 싫었다고 했다.
자기를 맡아서 길러준 포스터 부모는 아이를 사랑해서보다 한 아이를 맡아서 키워주면 정부에서 주는 양육비와 음식값이 필요해서 집을 구입하여 방을 네 개나 더 만들어 네 아이를 맡아

서 키우며 위탁부모로 수입을 얻으며 살고 있는 부부였는데 겉으로는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지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이들에게 심한 욕설과 학대를 교묘하게 하면서 세상의 눈을 속이는 겉웃만 거룩한 사람들이었다.
아직 5살밖에 안 된 잔이 디딤발판 의자 위에 올라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설거지통의 그릇들을 씻어서 수건으로 말려서 다시 키친 캐비닛으로 집어넣는 일은 다반사였고, 그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뒷마당에 볼일을 보면 치우는 일도 잔과 다른 포스터 형제들의 일이었다. 어쩌다가 개들이 볼일을 보고 난 후 잔과 형제들이 미처 발견치 못해 그것을 밟게 된 포스터 부모들은 길길이 소리를 지르며 쌍욕을 해대며 별로 음식을 제대로 주지도 않거나 방에 가두기도 하여서 잔과 그 집에 살고 있는 포스터 형제들은 개들이 뒷마당을 나가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개들을 따라다니며 뒷처리를 하고는 했었다. 잔이 포스터 흠에 가게 된 것은 중독자인 엄마가 다시 마약을 하다가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게 되자 잔과 한 살 어린 동생은 포스터 집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
위의 형제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를 때였다.
잔은 몇몇 집의 포스터 집을 전전하며 살다가 16살 되던 해 집을 뛰쳐나오면서 방향의 길을 시작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안정된 회사, 유능한 전문가와 함께라면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쉬어집니다.

- IRA / Roth IRA / 401(K) *
- 뮤추얼 펀드 / Brokerage Account *
- 평생연금 - Annuity **
- 은퇴계획 - Retirement Plans
- 상속계획 - Estate Planning
- 개인&비즈니스 생명보험- Life Insurance for Personal & Business
- 간병보험 - Long Term Care
- 생명보험을 활용한 학자금 플랜-College Funding using Life Insurance

* products offered through Registered of NYLIFE Securities LLC (Member FINRA/SIPC), a Licensed Insurance Agency and a New York Life Company.
** Issued by New York Life Insurance and Annuity Corporation, a wholly owned subsidiary of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The Million Dollar Round Table (MDRT), The Premier Association of Financial Professionals, is recognized globally as the standard of excellence for life insurance sales performance in the insurance and financial services industry.



178년 역사의 뉴욕라이프 성공 노하우를 전해드립니다.

김수현 (BILL "SUHYUN" KIM)

Registered Representative *(Financial Services Professional)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Agent

Mobile 253 802 2550

* Registered Representative offering investments through NYLIFE Securities LLC, (Member FINRA/SIPC), A Licensed Insurance Agency.

The offering documents (policies, contracts, etc.) for all New York Life and its subsidiaries products are available only in English. In the event of a dispute, the provisions in the policies and contracts will prevail.
뉴욕라이프 및 그 자회사들이 제공하는 모든중서 계약서는 영문약관으로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논쟁이 발생할 경우는 증권과 계약서의 각 조항이 우선합니다.



Insure. Prepare. Retire.

Be good at life.



종교칼럼



저자 나은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 술 맡은 관원장은 □ 떡 굽는 관원장은 □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창 40:20-23).

나라의 죄를 지은 죄수들을 가두는 무서운 감옥에 갇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한날 밤에 같이 꾸는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해 주었다.

그 해몽해 준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였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는 죄가 없이 감옥에 왔으니 왕에게 이야기해서 구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는 까맣게 잊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살진 아름다운 일곱 소가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그 뒤에 흉하고 바짝 마른 일곱 소가 그 살진 소를 다 잡아먹었다. 놀라서 깨었다가 다시 잠을 자는데 이번에는 무성하고 살진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마른 일곱 이삭이 나와서 살진 이삭을 삼켜 버렸다. 바로가 깜짝 놀라서 벌떡 깨었다. 너무 이상해서 애굽의 현인들을 불러 물어 보았으나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에 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나서 바로에게 고하게 되고, 바로는 감옥에 있는 그

를 불러서 그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일약 바로 다음의 권세를 가진 총리가 되어 7년 흉년에 이스라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요셉은 어릴 때에 형들의 뱃단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고 또 별 열한 개와 해와 달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이야기했다가 아버지 야곱이 내가 너에게 절하겠느냐고 꾸중까지 들었고 아버지가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히고 사랑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형들이 먼 들에서 양을 치는데 아버지가 음식을 손에 들려서 요셉에게 형들에게 갖다 주고 안부를 알아보라고 보낸다. 애쓰고 형을 찾아간 요셉에게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를 죽이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자.” 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장자 르우벤이 요셉을 살리려고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리자고 했고 유다가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자고 해서 요셉을 살린다.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 가서 주인의 총애를 받다가 음란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그녀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감옥에서도 성실하고 지혜롭게 일을 잘해서 간수의 총애를 받고 감옥 속의 모든 일을 맡아 하고 자유롭게 산 것 같다.

나는 요셉이 너무 훌륭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요셉이, 다니엘이 되게 해 달라고 계

속 기도해 왔다. 그런데 요셉의 그 고통과 사자 굴 속의 다니엘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다. 그런 고통을 믿음으로 잘 견뎌야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텐데 말이다. 요셉은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왕에게 잘 이야기해서 풀어 주기를 얼마나 사모했을까?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이야기해서 일찍 풀어 주었더라면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 다른 집의 노예로 가거나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의 무죄를 위해서 요셉을 정죄하면 요셉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 설혹 감옥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면 형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을까?

2년이란 긴 세월이지만 죄수에서 하루아침에 왕 다음에 가는 총리가 되는 기적은, 노예에서 죄수로 온갖 고생 속에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30세에 단번에 이루어 주셨다. 요셉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진실했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동하는 본을 보인다.

그래서 역을할 때에 죄 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에 원망하지 말고 인내와 믿음으로 더 성실하게 일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혹 이 땅에서 순교하면 저 좋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연단시키시고 가

장 좋은 때에 높여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성실하게 살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자녀들이 고난을 잘 감당하도록, 요셉과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사모하고 본을 받고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때에 남북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고난을 당하고 외치는 애국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대한민국 교회와 목사들이, 성도들이 올바르게 말씀으로 경건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의인들이 되어서 이 악한 마지막 때에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의인 열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는데 대한민국에, 북한 땅에 모세 같은, 기드온 같은,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고 모두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 올린다.

주님,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자유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감옥보다도 더 무섭고 두려운 고통 속에 사는 저 북한 백성들이 기뻐 뛰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때가 언제 올 것인지요? 더디 마시옵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의 때를 속히 이루어 주소서.



레이븐 경비회사/ 레이븐 공인탐정사

현재 호텔/모텔/상가/건물/빌딩 관리에 여러가지 사건 사고로 문제가 있으신가요?

민사·형사소송 사건증거수집업무	배우자	종업원
개인 신원조회업무	학력	범죄

레이븐 공인탐정사에서는 24시간안에 사람을 찾아드립니다. 못 찾을 시 의뢰비를 받지 않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해 레이븐경비회사로 연락주세요.
Tel: 253.353.3663 / Web : WFPDICI.com

RAVEN LEGAL TASK FORCE
RAVEN SECURITY ENFORCEMENT AGENCY #858
ARMED SECURITY PRINCIPAL #79760
RAVEN PRIVATE INVESTIGATION AGENCY #2037
RAVEN ARMED PRIVATE INVESTIGATOR PRINCIPAL #4036

휴람칼럼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궁금증 Q&A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40대 중반부터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위험도가 높아지는 관상동맥질환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Q.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좁아져 심장에 혈액 공급이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달리기나 계단 오르기처럼 심장이 평소보다 많은 산소와 혈액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통증은 보통 5~10분 정도 짧게 지속되며 휴식을 취하면 호전되는 편입니다. 심근경색증이란 좁아진 혈관이 혈전 등으로 인해 완전히 막혀 심장 근육 일부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 조직이 손상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갑작스럽고 극심한 흉통이 30분 이상 지속된다면 급성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하며,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Q. 최근 국내 관상동맥질환의 발생 추이는 어떠한가, 몇 살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의 환자가 증가하면서 관상동맥질환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젊은 연령층에서 조기 발병하



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40대 중반부터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시점부터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만약 가족력,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 등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더 이른 시기부터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Q. 관상동맥질환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험 인자 관리는 물론이고, 정기적인 검진

을 통해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미약한 경우 병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도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건강했는데 혹시?” 하고 내원했다가 심근경색으로 응급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40대 중반 이후라면 정기적인 검진으로 혈관 상태를 확인하고,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위험 인자를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Q. 관상동맥질환의 진단을 위해서는 어떤 검사가 이뤄지나요?

기본적으로는 환자에게 방사선 노출이나 조영제 사용과 같은 부담이 없는 심장초음파 검사 또는 운동부하검사를 통한 심기능 평가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운동부하검사는 달리기를 통해 심장에 부담을 주며 심전도 변화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무릎·허리 등의 통증으로 충분한 운동을 하지 못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적절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중등도 이상의 위험군인 경우 혈관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심장 CT나 핵의학 검사를 시행하고 필요 시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급성 심근경색 및 급성 관동맥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고 응급 시술을 하게 됩니다.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궁금증 Q&A”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에스더 나 이사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 선정 - 진료 예약 - 치료 - 사후 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문의: 206-779-5382(에스더 나 이사)



김용석 (Bruce Yongsuk Kim)

Agent,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Cell. (206) 371-4620

Email. ykim13@ft.newyorklife.com

The offering documents (policies, contracts, etc.) for all New York Life and its subsidiaries products are available only in English. In the event of a dispute, the provisions in the policies and contracts will prevail.
뉴욕라이프 및 그 자회사들이 제공하는 모든 중서 계약서는 영문약관으로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논쟁이 발생할 경우는 증권과 계약서의 각 조항이 우선합니다.
SMRU1877550 ©2017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51 Madison Avenue, NY, NY

안정적인 재정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도나 안내서는
필요없습니다.

평생연금* 은퇴계획 상속계획
생명보험 연금보험 간병보험

가장 효율적인 재정관리 및 은퇴를
원하신다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Insure. Prepare. Retire.

Be good at life.





참석자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10세 참가 학생 레나 세이와 그의 아버지 브렌던 세이가 부녀 라이브 연주를 하고 있다.



벨레드 아츠 디스트릭트 커뮤니티 얼라이언스 마리아 로 웨이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비주얼라이징 코리언 시네마' 성황리 마무리

지난 5월 29~30일 벨뷰 벨레드 아트 스튜디오에서 개최...시애틀 총영사관 후원 한국영화 장면 회화로 재해석...영상 언어를 색과 구도로 번역한 문화 교육 시도

한국 영화를 주제로 한 학생 미술 전시 '비주얼라이징 코리언 시네마 (Visualizing Korean Cinema)'가 지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벨뷰 벨레드 아트 스튜디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인커리지 아트, 벨레드 아츠 디스트릭트가 공동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구광일 시애틀 문화담당 영사를 비롯해 30여 명의 관람객이 참석했다.

◆ 학생이 기획하고, 학생이 만든 전시 이번 전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기획과 진행, 홍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이다.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은 엘리나 리는 시애틀 레이크사이드 스쿨 신입생으로, 이번 전시의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하고 실행까지 주도한 장본인이다. "저는 한국 인이고 미술을 좋아해서, 이 둘을 결합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주변을 보면 케이팝이나 케이드라마는 잘 알아도 한국영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한국 영화를 작품으로 만드는 갤러리를 열어 보고 싶었어요"라고 기획 배경을 설명했다. 리는 전시 준비 기간 동안 인스타그램을 직접 운영하며 주요 영화 소개와 홍보 활동을 병행했다.

리셉션 진행도 학생의 몫이었다. 김현석 영사의 큰딸 김서연(해나)이 이날 리셉션 전반의 사회를 맡아 능숙하게 이끌었으며, 동생 김서아(엘라) 역시 작품을 출품해 자매가 함께 전시에 참여했다. Studio S Fine Arts 권선영 원장은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평소부터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보다 학생 각자가 스스로 느끼고 표현하



참석자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는 과정을 중심에 두는 교육 철학을 견지해 왔다. 이번 전시는 바로 그 철학이 실제 결과물로 구현된 사례로, 학생 주도형 문화 학습이 어떤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 영상 언어를 색과 구도로 번역한 학생들 참가 학생들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정이삭 감독의 <미나리>,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등 한국 영화사에 굵직한 족적을 남긴 작품들을 감상한 뒤, 영화 속 장면과 주제를 자신만의 시선으로 재해석해 캔버스에 옮겼다. 사실적 표현부터 스타일라이즈드 기법, 추상적 접근까지 다채로운 방식으로 완성된 작품들이 전시장 벽면을 채웠다. 이 과정은 단순히 영화 장면을 베끼는 작업이 아니었다. 영화가 화면, 대사, 음

악, 배우의 표정, 색감, 공간 분위기 등 여러 요소로 전달하는 메시지를 학생들은 색과 선, 구도, 상징이라는 미술의 언어로 다시 구성했다. 영상 언어를 미술 언어로 번역하는 창의적 과정이었던 셈이다. 한국영화에 담긴 가족, 우정, 빈부 격차, 정체성, 세대 갈등 같은 주제들은 미국에서 자란 학생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인간 보편의 감정과 맞닿아 있었다. 학생들은 한국 사회의 삶과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자신들의 경험과 비교하고,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도 공통된 인간적 감정이 있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발견했다. 권 원장은 "참여 학생 대부분이 영어권에서 자란 2·3세로, 케이드라마나 케이팝에 비해 한국 영화에는 상대적으로 낯설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한국

영화가 기억과 정체성, 불평등, 인간 경험 같은 보편적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문화 콘텐츠임을 한인 차세대뿐 아니라 미국 주류 관람객들에게도 알리고자 했다"고 밝혔다.

◆ 자신의 작품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선 무대 30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된 리셉션의 하이라이트는 10세 참가 학생 레나 세이(Lena Hsieh)와 그의 아버지 브렌던 세이의 부녀 라이브 연주였다. 레나는 이번 전시에 직접 작품을 출품한 학생이기도 하다. 자신이 공들여 완성한 그림이 걸린 전시장 안에서, 아버지와 나란히 악기를 들고 무대에 선 것이다. 레나가 첼로를, 아버지 브렌던이 바이올린을 맡은 이 부녀 듀오는 이날 세 곡을 연주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 (바이올

린과 첼로를 위한 편곡), 러시아 작곡가 글리에르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듀엣 Op.39 중 <베르쾨츠(Berceuse · 자장가)>와 <가뭇(Gavotte)>이었다. 레나는 "이번 전시에서 미술 작품도 내고 아버지와 함께 연주도 할 수 있어서 특별한 경험이었다"며 "평소 미술과 음악을 모두 사랑하는 만큼 두 가지를 한 자리에서 함께 선보일 수 있어 정말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화가이자 연주자로 같은 무대에 선 열 살 소녀의 모습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벨레드 아츠 디스트릭트 커뮤니티 얼라이언스 이사장 마리아 로 웨이는 인사말에서 "이스트사이드에 활기찬 예술 지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번 전시처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사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한류의 확장이라는 맥락에서도 눈길을 끈다. 미국 학생들이 한국 영화를 감상한 뒤 장면과 감정을 회화로 표현한 작업은, 한국문화를 단순히 배우는 차원을 넘어 자신들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재창조하는 문화 교류의 과정으로 평가된다. 한류가 음악이나 드라마 소비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예술·창작 활동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권 원장은 "비주얼라이징 코리언 시네마는 단순한 미술 전시를 넘어, 젊은 예술가들이 영화를 통해 사회와 역사, 정체성을 이해하도록 돕는 문화·교육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표현하는 방식의 프로젝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화 교육 관련 문의는 이메일(studios.artclass@gmail.com)로 가능하다

(기사·사진:시애틀코리아데일리 김승규 기자)

2027년 서북미 통합업소록과 함께하세요! 통합한인업소록 리스팅·광고접수
광고문의 206.779.5382